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幼年(同上)

河北南部를睥睨코 疾風的前進을繼續
保定攻略도目睫間

【平漢線○○에서十五日發同盟】琉璃川을 끼고 對峙한 敵軍十數萬의 二十里에亘한 戰線의 左翼을돌코 이를 殲滅하고저 攻擊을 開始한 我○○部隊는 十五日午前 皇軍의 精銳○○機의 爆擊과 呼應하야 後方砲兵陣地로부터의 掩護射擊下에 火蓋를 여럿는데 琉璃川北岸에 漸漸肉迫한 我部隊는 突擊命令一下 部隊長을 先頭로 풍덩풍덩河中으로 뛰여드럿다 降雨와 가튼敵彈을 無視하고 銃을두手로노피들고 腰部까지빠지는 激流를건너서 對岸의 敵陣에 작뛰여드럿다 敵의 頑强한 抵抗도 勇猛한이 鬼神가튼 我將兵의 奮戰에는 對敵할수업서 瞬息間으로 塹壕中에 死體가 山積하며 殘餘의 敵은 南方으로 向하야潰走하엿다 我○○部隊는 即時 應急架橋를行하야 前進又前進 敗敵을 石窩鎭方面으로 追擊中이다

琉璃川北岸을突破 敗敵을猛追擊中
塹壕中에는屍體가山積

【天津十六日發同盟】平漢線方面의 我部隊는 十五日 午前六時半 早曉부터 平漢線西方高地房山及 그西北方約二里의 天子山에 亘한 敵에 對하야 一齊히 攻擊을開始하엿다 天子山方面에는 我空軍과協力하야 步兵部隊는 寶店鎭에肉迫하야 再次猛擊을加하고 一方○○部隊는 十四日夜 永定河를 渡涉徹宵强行軍을 繼續하야 黃河近方에 達하고 또 最左翼部隊의 ○○部隊도同夕刻으로부터 永定河의 敵前渡河를行하야 敵의頑强한 抵抗을排하고 前進하고잇다 我損害는 戰死者八名戰傷者約七十名으로 敵은我에 數倍되는 損害를입엇다 또 後各莊八里莊의線에 陣地를構築한敵은 永定河敗戰後이를 撤收하엿다 長谷川部隊는 徐管莊 ○○部隊는 楊管莊의線에 達하야 我前線의士氣는 갈작히 旺盛하다 夜에入하여서도 進擊을 續行하야멀리 黃河岸까지 一氣로 이를 追擊할氣勢이다 我方에 抵抗한敵은 馮占海 萬福麟의雜軍으로 이에 對하야 保安東方白洋淀湖로부터 我方에抵抗하는者잇스면 斷乎砲擊을 加하는바 南方에 潰走하는雜軍에는 不顧하고 目標하는것은 中央軍이라고 意氣자못猛烈하야 前進에 前進을 繼續하고잇는데 十四日夜來 겨우 二十餘時間疾風迅速한 我軍의行動으로 保定을爲始하야 河北南部諸縣攻略도 目睫間에잇다

敵大部隊續續退却

【天津十六日發同盟】涿州平野의 敵의大集團은 모두 南霸縣雄縣附近에잇다 敗殘兵은 南方及西南方으로 二隊로分하야 遁走하고잇다 또 敵의有力한 大部隊는 今朝李家口(永淸縣南方十六粁)辛店을 行軍縱隊로 退却中이다

拒馬河는重要地 敵第二布陣地

【北平十五日發同盟】我軍이占領한 南拒馬河는 河北省中部에잇서 第一가는 交通水路로 下流는 白河에 注入하야 天津과連結되여잇고 上流는 琉璃河中流로부터 運河로 保定에 連繫되여잇다 平時水深三米收幅、五十米乃至百米、南岸은 十米의 斷崖가 連續하여잇고 物資를 輸送하는帆船이 曳船으로 채워잇다 支那軍이 今回日支開戰에 當하야 拒馬河의 線에 第二陣地로 布陣하고 四個所에 鐵舟로서 架橋하엿스나 今日 너무나 速한 我軍의 殺到로 放火退却하엿는데 切斷된 鐵舟는 下流로 向하야 轉轉流下하고잇다

敵의空軍은潰滅狀態

【上海十五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의活躍으로 支那空軍은 潰滅狀態에 瀕하여잇다 十五日까지 破壞된 敵機는 一百十七機中 空中戰에서 擊墜된것이 九十七機 地上射擊及 爆擊으로 破壞된것 이 百二十機에 達하엿다

琉璃河畔에壓迫

【平漢線前線○○에서十五日同盟特派員發】平漢線의 皇軍部隊는 十五日 午後二時 敵軍의 中部最前線 最左翼의 據點으로 不拔의 堅壘라고 자랑하면서 二旬에 亘하야 死守하든 房山을 空陸呼應의 猛擊으로 마침내 이를占領하고 繼續하야 追擊으로 올마 潰走하는敵을琉璃河畔에서 壓迫하는 中이다

各國艦隊司令官 連名으로勸告提出

【上海十五日發同盟】米國極東艦隊司令官 야넬提督以下 英、佛、伊、和蘭各國艦隊司令官은 十五日午後一時連名으로써 日支兩當局에對하야 蘇州河以南의 共同租界及佛國租界에 高射砲彈이 落下하야 非戰鬪員에게 重輕傷者를 내인 事實이잇다 如斯한脅威를 除去하기爲하야 日支兩國飛行機가 租界上空의飛翔을 避하고 또租界內에 高射砲彈이落下되지안케하기를바란다는旨의勸告的申請을하여왓다

戰況急速進捗

【天津十五日發同盟】軍司令部午後四時三十分發表
一、我○○部隊는 敵을追擊하야 午前十一時南孝城(固安東南方

皇帝陛下의親臨을仰하야 國都建設記念式典
大同公園廣場에서擧行

【新京十六日發同盟】建設後겨우 五年『世紀의驚異』라고까지 謳歌된 未曾有의 記錄的스피드로서 完成의 第一步를構築한『新興國都』의偉容을 中外에 宣揚하는 國都建設記念式典은 祝賀諸行事에앞서 十六日 午前十時부터 大同公園廣場에서 惶恐하압시게도 皇帝陛下의 臨御를仰하야 植田關東軍司令官 張國務總理以下 日滿官民 三千三百餘名參列下에 極히 嚴肅盛大히擧行되엿다 이보다먼저 式典場인 大同公園廣場에는 植田軍司令官 張國務總理以下 이曠古의 盛典에參列하는 光榮에 浴하는 日滿官民 三千三百餘名이 威儀를正히하야 御奉迎裡에 皇帝陛下께압서는 陸軍將式通常 御禮裝으로 自動車鹵簿로 十時十分 式典場御着 御休所에서 植田軍司令官張總理 鄭國都建設局長及 徐新京特別市長에 謁을賜하압신後式典場에臨御 中央에 一層노픈玉座에御着席 張總理는 壇上中央에 나아가 參列諸員과함에 一齊히 最敬禮를 行한後 式辭를奉讀하고二十八分惶恐하압시게도 皇帝陛下께서는 玉音朗朗優渥하압신 勅語를 宣諭하압시엿다 御宣諭가마치시자 張總理는熙宮內府大臣前에 나아가 勅語書를拜受한後 소래노피『皇帝陛下萬歲』를 三唱하매 參列한諸員도이에 和하야 萬歲를 三唱하엿다 如斯하야 陛下께압서는諸員敬禮裡에 式典場을 御退出하사 御休所에서 御少憩하압신後 同四十三分 御機嫌御麗하압시게御車寄發御 國都建設局 國務院及安民廣場御巡行에 向하압시엿다 植田軍司令官以下 參列諸員은園內의 賜饌場에서 祝盃를 擧하엿다

大野總監祝電

大野政務總監은 十六日滿洲國國都建設記念日에際하야 同國國務總理張惠景氏에게 左와如한祝電을發하엿다
貴國國都建設記念式典을 慶祝하고 兼하야將來의 發展을 祈禱한다

退却하는敵을爆擊

【天津十五日發同盟】軍司令部午後五時五分發表 我航空部隊○○機는 今日午後四時三十分 高碑店及 容城上空에서 退却하는無數한敵을 發見하고 此에徹底的爆擊을加하야 莫大한 損害를與하엿다

四키로)、劉家東內大營(永淸東方五키로)線에 到達하엿다
二、平漢線方面에잇서 我○○部隊는 堅固한陣地에 蟠據한敵을 驅逐하고 午前十時楊子崗을占據하엿다
三、我飛行部隊○○機는 午前十時 洛陽으로부터온 敵戰鬪機와 空中戰을 演出하야 敵에게 多大한 損害를與한後 ○○飛行場에 歸還하엿다

上海戰況

【上海十六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前九時四十五分發表
一、陸戰隊는 海軍航空隊의 爆擊과 協力하야 江灣의 前敵을壓迫中이다
一、十五日深更 古田部隊正面에 數團의 敵逆襲이잇섯스나 그때마다 이를 擊退하엿다

拒馬河渡河部隊 前面敵掃蕩코西進
空軍部隊는敵을爆擊

【天津十六日發同盟】十六日午前九時軍發表
一、昨日來 拒馬河左岸에서 渡河準備中이든 我○○部隊는今曉에亘하야 拒馬河를 渡河하고 石黑部隊及 ○○部隊는前面의敵을 掃蕩하면서 西進하엿다
二、今朝六時乃至 七時間에 我○○部隊는 牛駝鎭(固安南方二十粁)으로 進擊하야 敵을西南으로向하야 進擊中이다

【○○에서同盟特派員十四日發】永定河를 건너서 前進中인地上部隊와協力하야 十四日朝부터大活躍을한 陸軍航空隊 秋田部隊의○機는 同日午後三時 齋藤部隊○○機는 同四時半 모두根據地를出發하야 容城、徐水、保定方面으로 退却中인 敵兵에機關銃의 猛射를 퍼붓는同時에 爆擊을 敢行하고 軍隊輸送用自動車十五、六輛、空車三十輛을 爆破하야 甚大한損害를 與하고모다 同六時無事根據地에 歸還하엿다

附近의 敵陣地를逆襲하야 奪取하엿다 該方面의敵은 依然히頑强한 抵抗을繼續하고잇다
二、中部方面에잇서서는 拒馬河左岸地區에達하는 我部隊는月明下에 渡河를決行하고 今早曉까지에 石黑坂西의兩部隊는 右岸에 進出하엿다 該方面의 敵은 적어도 一個師를不下하는듯하다
三、左岸方面에잇서서는 昨夜諸處의敗殘兵의執拗한 抵抗을排除하면서 牛駝鎭(固定의 南方廿粁)를奪取하고 西南方으로向하야 追擊中이다 該方面의敵은 遺棄死體五、六百을不下한다

平漢線戰況

【北平十六日發同盟】十六日午前八時 軍司令部發表
一、平漢線方面의 我第一線은昨夜謝子崗(房山西北約四粁)南側高地及 田各庄(房山東方二粁)

平漢線의最要點 ○○空爆을敢行

【○○根據地十六日發同盟】我陸軍部隊는 昨日來地上部隊와 呼應하야 退却中의敵을急追中이엿섯는데 十六日午前八時다시○○部隊中富部隊及島田部隊의 ○○機는 가을아침날에 銀翼을번듯이며 編隊로써 勇躍平漢線의 最要點○○爆擊을 敢行하엿다

各部隊 敵大部隊를擊破

【天津十五日發同盟】天津駐屯軍午後一時五十分發表
一、我○○部隊의 步兵第一線은 午前十時敵을 擊退하면서 拒馬河線에 到達하엿다
二、我○○部隊는 午前十一時頃 老君堂(永淸縣西方三粁)에 到達하야 敵을 西南方으로 追擊하는中이다
三、敵의 大部隊는 白溝河鎭(雄縣西北方約十六粁)에 集結하엿스나 我飛行部隊의 爆擊으로 容城縣(白溝河鎭의 西南方十二粁)로 向하야 潰走하는中이다
四、敵의 騎兵大部隊는 牛駝鎭에 集合하엿는데 我飛行部隊는 이를爆擊하엿다

平綏線部隊前進

【大同十五日發同盟】大同鎭을占領한 我○○軍은 逃走하는 內長城線을너머太原方面으로 十四日早曉 大軍을 急追하야 山西同西南方二十粁 口泉鎭一帶의 炭田을 占領하고 다시 南進하야 十五日午前四時半 懷仁縣城을 占領하고 古城望樓에 高히日章旗를 揭揚하고 숨쉬일사이도 업시 同七時十分 同城의 西方에잇는 山西軍兵營을 完全占領하엿다 懷仁縣民은 每戶에 日章旗를 揭揚하고 我軍을 歡迎한다

鈴木隊長以下 名譽의戰死

【上海十五日發同盟】楊行鎭附近廟村 攻擊에當한 ○○部隊의鈴木隊長 中野副官及 乘山少尉는去十一日廟村戰에서 重傷을負하고 名譽의戰死를 遂하엿다 또怡士部隊長도 負傷하엿는데 이에굴치안코 陣頭에서서 指揮를繼續하고잇다

我空軍○○機 長驅保定을爆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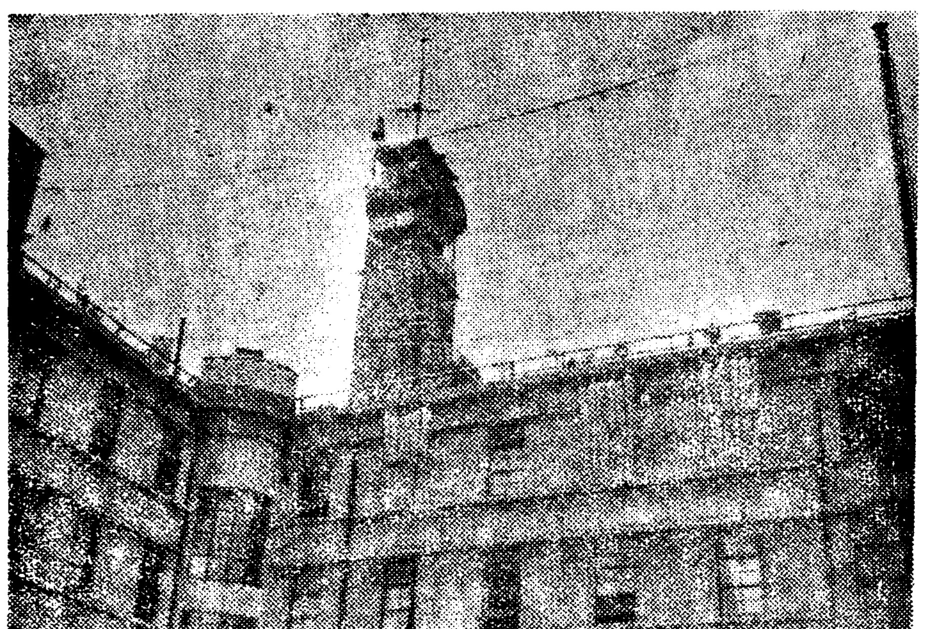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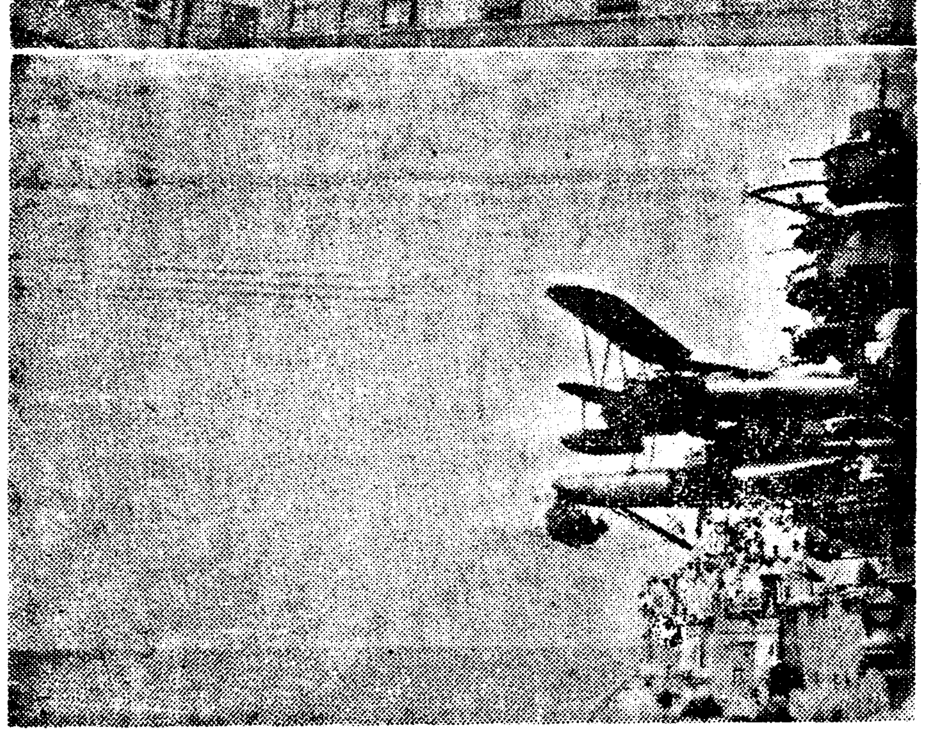
【北平十六日發同盟】今朝○○根據地를 出發한 我空軍○○機는 午前七時頃 長驅保定의大爆擊을 決行하야 鐵道線路를 爲始하야 市內各處에 數十彈을投下하엿다 目下停車場其他市內에 大火災를이르키여 黑煙이 衝天하야 悽慘을極하며 敵에多大한損害를 입힌模樣으로 保定全城은 大動搖를招來하엿다

平漢線各驛敵列車爆破

【北平十六日發同盟】昨日來活動中이엿든 我裝甲列車는 昨夜深更寶店鎭驛附近에 進出하야 鐵道兩側의 陣地로부터 猛射하는 敵軍에 追擊砲機關銃의 猛擊을 加하야 이를 沈默시키고 다시 陣地의 한가운대를 突進又突進하야 鐵道兩側의 敵을 모조리 너머트리고 今曉드디여 琉璃河驛에 達하엿다 또地上部隊와 呼應하는 我空軍○○機는 아침안개를뚤코 ○○根據地를 出發하야 平漢線各驛에 待機하고잇는 敵軍列車에對해 目下爆擊을 敢行中이다 敵은 松林驛에 二個列車 高碑店驛에 一個列車 定興驛에 六十輛、七里店에 一個列車、大明鎭에二十七輛을 待機시키고잇다

拒馬河敵頑强抵抗

【北平十六日發同盟】今曉拒馬河渡河에 成功한 石黑、坂西兩部隊正面의 敵은 中央軍第十師(師長李默庵)는 支那軍中의精銳로서 目下我方에 對하야 相當히頑强한 抵抗을示하고잇다

上海戰線 敵의 集中砲火에도 不屈코 泰然히 屹立한 陸戰隊本部監視哨(上)와 將次艦上을떠나 任務를 다하려는 海軍○○機

廣東市를再次爆擊

【香港十六日發同盟】十五日午後十一時半我海軍航空隊는 月明을利用하야 廣東市를 再次空襲하엿다 一隊는虎門要塞 他一隊는月龍의上空을날려서 다음廣東市에나타나 郊外의省政府機關 軍事施設等을中心으로 爆擊을加한模樣이다 支那側은 人心의動搖를念慮하야 嚴秘에附하고잇다

蔚縣南方에肉迫

【天津十五日發同盟】天津軍司令部午後六時發表
一、今日早曉蔚來 平漢線方面에서 攻擊前進한 鈴木 森本兩部隊는 午後二時頃 敵을 攻擊하면서 寶店驛東西線에到達하엿다
二、蔚縣部隊는 더욱一部로써 南進하야 今日午後一時頃 蔚縣南方八里地點에 到達하엿다

人事・集會

▲有賀光豐氏(殖銀頭取)渡東中十七日歸任
▲村尾俊雄氏(殖産銀行龍山出張所長兼 新龍山出張所長)新任 人事次本社來

寺內最高指揮官과 記者團과의問答

【天津十六日發同盟】北支戰線에잇서서의 我軍最高指揮官 寺內大將은 十六日午前八時 陣中多忙한데 暫時新聞通信記者團을引見하엿다 大將은閑에依하야 明朗性을 發揮하야 開口하자마자 『雜談한이약이는 그만두자』고 雜談的으로 如左히 一問一答을試하엿다

記者 多忙한가
大將 머 部下가 全部해주므로 餘暇가 만하겨정이다 그러나 저러나 君等도 相當하네
記者 降雨로 軍의行動이 遲延된것이아닌가
大將 豫定대로 行하고잇다 個個의 線으로는 或은 그럿케도 잇는지모르나 全體로는豫定대로 進展되고잇다
記者 事變의 透視如何
大將 언제終了할지 모르다 오래끄을걸……그런데 君等은彈丸미트로단엿나 무어從軍햇다 그것은 굉장하걸 今後에도잘 해주기바라네

天羽公使、我見解를 聯盟에披瀝
日支紛爭原因에關하야

【쥬네브十五日發同盟】國際聯盟에잇서서의 支那代表의 暗躍을監視하기爲하야 베른駐劄公使天羽英二氏는 數日前쥬네브에와서形勢의推移를 注視하고잇는데十五日 日支紛爭의 原因에關한日本側의 見解를披瀝한 聲明書를各國代表에 手交하엿다 右聲明書內容은 十五日午前 總會에잇서서의 支那代表顧維鈞의 演說을反駁하야 日本의公正한 立場을 明白히한것으로 그中에去九月五日의 廣田外相이行한 議會演說을 引用하고 最後로 支那의挑戰態度가마침내 日本으로하여금 그權益을 擁護하기爲하야適切한手段을取하지아니치 못하게된것이라고結論하엿다

八面鋒

◇沿海州出漁問題、鰮群의南下로 自然解決되리라고。
◇秋風이 불기시작햇스니 燕去雁來할 時節도 갓가온모양。
◇平壤近郊에 明朗한貧民村을設置할 計劃이잇다고。
◇建物에 琉璃窓을만히하나、몃百燭자리電燈을켜든가、貧民街의明朗術이 무어인지알고지고。
◇産金令實施로 市中買入은그런자를 감추게되고 金이란金은朝鮮銀行으로 集中。
◇元來가 貴한金이지만、이뒤론정말 貴한金이될모양、黃金狂時代의 再繼進請라할가。

高級朝鮮住宅出現

現下京城의住宅難이 激甚하다함은 新聞紙上으로 보아알리아시는바어니와 此에 느끼는바잇서 左記에 列記한 理想的地帶에 高級分讓住宅을今春부터 施工中이든바이제 그竣功을見하고分讓을 始作하엿사오니 一次試見의榮을주옵기바라오며 工事中間多數의豫約을주신 諸賓에는玆에謝意를表하나이다

場所 鐘路六丁目 十二番地
舊學部大臣李載崑氏邸跡約三千坪 南向地帶

交通至便眺望絕佳
上下水道完備內後庭의廣活
建材高級設計完備間尺豊富
衛生地帶買物利便
四乃至五米突道路
價格低廉

過去의買賣되든 狹隘한住宅과는 全然比할수업사오며間의 尺數이며內庭後庭의廣活한點 建材의高級堅固한點等으로보와 利益의超越은確證되가하나이다
家屋數의制限이잇사오니 注文은迅速히
希望하심에따라數地만도分讓하나이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十番地 (電本三六五五)
養士臺分讓住宅事務所

神의은사와人間의의무

신의 은사와 사람의 의무는 언제나 함께 따르는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사가 잇음으로 비롯하야 이 은사를 방은 사람의 의무가 생기는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것은 사람이 의무를 잘 행하면 그 대가로 무슨 은사를 밧는가 함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갑업시 귀한것이라 어찌 인간의 여간한 의무 리행으로 공로를 삼아서 은사를 구할수 잇으랴 하나님께서 천지를 내시고 인간을 그 가운데 두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하신만이라도 감엇시 주신 은사이언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닷지 못하고 의무를 리행치 아니함으로 계명과 률례와 법도를 주사 지키게하시고 이것을 지키는자에게는 어떠한 따르는 은사가 잇을것을 말슴하야 권장하신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은사대신에 저주를 밧고 때망하엿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쪽 허락하섯던 주「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닙으시고 인간의 바둘 이저구주를 대신 바드사 十자가 형틀에서 못박혀 죽게하셧스니는 언간으로 정화위복이 되게하심이다 이러한 속죄의 은사는 은사를 깨닷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은사를 재 인식하게하려하심이다 따라서 인간의 인간다운 의무심을 다시금 요구하고 권장하신것이다 오― 형제자매여 그 은사와 의무를 리해하는가

京城府鐘路 朝鮮耶蘇敎書會編輯部 白

一內科一般 特呼吸器 消化器
一X光線科 (入院室完備)
京城府堅志町四九
堅志醫院
醫學博士 朴鍾瑄

犬
軍用犬세파ー드
優秀犬仔犬及成犬廉價分讓
希望者는至急히通寄하십시오『目錄進呈』
新義州榛町
大日本犬の學校
『訓練士見習募集』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二五九

外科 X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秋季競馬會
開催日
九月十八日(土) 九月廿六日(日)
九月十九日(日) 十月一日(祝)
九月廿三日(祭) 十月二日(土)
九月廿五日(土) 十月三日(日)
於東大門外競馬場

メリヤス既製服 仕入御案內
品質優良。廉價。製造卸。
三重縮印メリヤス製造發賣元
山佐洋行內地部
大阪市北區

毛綿メリヤス 既製服
タオル。洋傘
毛布。首卷。
靴下。手袋。
洋品雜貨各種
東亞印學生服特約賣捌所
現金卸問屋
坂野合名會社
京城觀水町一四七 電光五一〇八 振替京城八一四一番

肉の味覺
名物 牛肉壽き焼
美吉の自慢
仲居は大阪流
半島の名物
牛肉・壽き焼
美吉

今後每月六日을 愛國日로規定遵守

全朝鮮學校總動員

堅忍持久、生業報國의精神을體하야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지난륙일 전조선의 각중학교를 총동원하야 애국일행사를 개최하야 총후의 이세국민으로써 의미기픈 성과를 엇게되엿는데 지난번남(南)총독으로부터 견인지구(堅忍持久)생업보국(生業報國)의유고가발표되자 교육계에서도 더욱 긴장하야 시국극복에 매진할사명을 자각하고 이회기적애국일의행사를 계속하려고 금후매월륙일을 애국일로 정하야 당일에는 전조선제학교가일제히 학생 생도 아동의 훈육지도에실천적효과를 나타내이게 되엿다 이애국일의 실천사항은 다음과갓다

一、국체관념의 명징에 관한사항 신사참배 황군 무운장구기원 사변전몰자의 신령에 바치는 묵도등 이상의 행사차례는제일회애국일의 본을바더 실정에응하야 실시할것

二、로력봉사에 관한사항

(가) 학교부근 (될수잇스면부락(部落)정구(町區)에 미치게할것)의도로의 개수소제

(나) 신사경내 공원 고적 국가사회공로자 절부(節婦)등의사당또는 비석등의청소

(다) 가로수(街路樹)학교림의보호등

이상은 각기본분의 자각을촉진할것이며 겸하야 장래에잇슴직한로동력 부족에대한 보충적훈련을하야 시행할것

三、휼병고군(恤兵犒軍)국방자재(國防資材)헌납에 관한사항

생도아동의 자발적의문 헌금품은 될수잇스면 애국일당일에 가지고올것으로하고 이에쓰여질경비도 별서 통첩한바와가티작업의실시 혹은 장려 일상경비절약 직업과 제작품의매각 사료의채집 신탄채취 혹은 직업과상업실습등의 로작에의하야어든것을 출연하기로하고 부형의부담에의뢰할 금품헌납은 이로인하여는 하지안흘것

四、근검인고심(勤儉忍苦心)의강화에관한사항

(가) 내구행군(耐久行軍) 또는 원족

(나) 학교방호연습

(다) 변도의간이화

(라) 학용품의절약

朝鮮人의銃後美談 大大的으로募集

社會事業協會서活動

사변의 총후에 꼿피는 조선반도민중의 미담가화는 끈일새업시 국민의적성을 말하고잇스나 또다시 아래와가튼 총후의흔 독행자가 반듯이 잇스리라하야 조선사회사업협회에서는널리 조선인으로부터의 미담가화를모아서 숨어잇는 선행을표창하야 널리세상에 소개하고 또출동응소군인 유가족에 대한부조의 만전을 기하게되엿다 모집규제는 대략아래와가티동협회기관지 『동포애』(同胞愛)에발표하기로되엿다 또한 내용은 현존의 사실인것을 요하고 문중의 인물도 작가명도 인명을불허하기로되엿다

一、조선에서 출동 또는 응소군인의가족 유족에대한위자 부조에관하야 특히 표창의가치가잇는 선행미담에 대하야현상문모집을한다

一、구어체(口語體)(千五百字以上)

一、마감 매월십일 (第一回는來十月十日)

一、글보낼곳 總督府內務局社會事業協會

一、상금(賞金) 一等(二十圓)一人 二等(十圓)二人 三等(五圓)三人

一、입선문(入選文)은 군사후원련맹으로부터 표창함

一、입선문의 유가족에 대하야는 조선군사후원련맹으로부터 적당히 위자의방법을 강구함

山上部隊給養은 非常히困難

戰地서도라온中尾大尉談

지난달 이십팔일에 ○○을출발하야 북지전선에 출장하엿다가 십삼일에 도라온○○사단중미대위(中尾大尉)는 현지의최근상황에 대하야 십오일 오전에 기자에게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병사들에게 급여(給與) 상황은 최근에는 비교적 원활하게되고잇다 ○○부대(部隊)중 산상숙박(山上宿泊)부대에 대하야는 산밋까지는 급여품이 가지마는 산우에까지는 삼사시간이나 걸리게되므로 하로세끼밥을다가지고 가지못한다 그래서아침 저녁두끼만 『쿠리』를 시켜서 실어보내고 점심은 마른빵으로 먹게하고잇다 산우에는물이업서서 매우곤난하나모다들원기가왕성하야적군이 야습(夜襲)을하여오드라도 단번에 격퇴하여버리는 현상이다 그러고 산상숙박부대의거처는 적군의 반대방향인 산우에서 굴을 뚤러서그안에서 머물고잇다

위문품은 제일선부대까지에는 잘전달되지못하고잇섯는데 내(중미대위)가 현지에 도착한 이달륙일경에 겨우도달되는것을보앗다

수송관계로 대부분은 천진주둔군창고(天津駐屯軍倉庫)에산더미가티 싸여잇고 제일선병사에게는 좀처럼 전달되지못하고잇다 그래서 제일선병사들은위문품을몹시기다리고잇는형편이다

李熹、李鍝兩公妃殿下 金釵會에賜金

關係當局者들은感激

조선부인의 애국단체인 금차회(金釵會)에는 일전에 창덕궁대비전하(昌德宮大妃殿下)께옵서금일천원을 하사하옵심과 리강공비전하(李堈妃殿下)께서 금찬두개를 하사하심이 잇서서 동회김회장(金會長)이하 회원일동은황공감격하는바 이번에도 리희공(李熹公) 리우공(李鍝公)량비전하께서 금일백원식을 하사하옵심으로 동회에서는 감격히 이것을 배수하야 휼병의 자금으로 군부에 보내엇다한다

金釵會幹部 將兵家庭慰問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에서는 오는이십일오전십시부터 시내옥인정(玉仁町) 김회장(金會長)자택에서 간사회를 개최하고금후진행할사업의 계획과 그동안회무경과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협의한후 동십일시부터는 시국에 관한 각종활동사진을 영사하야 시국영화대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간사약삼십명이 십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부내출정장병가족위문과 전사장병유족 조문의례를 호별적으로 행할터이라는데 당일순방할때에는 상당한 위문품도 증정하려 이라한다

總督官邸

不日中入札

총독관저신축은 소화십삼년도부터 계속건축하기로 예산을계상하얏든바 마침내 총독부후원에 신축하기로되어오는 이십사일청수조(淸水組)간조(間組)대창조)등의지명입찰에부치기로 되엿다 신관저는철근『콩크리트』벽돌이층의 미술건축으로 총건평 오백륙십삼평인데 소화십삼년말일까지 준공할예정이다

慰問袋四萬個

북지사변이래 최근까지 조선군사령부애국부에서 접수하야현지로 발송한위문대(慰問袋)는약이만오천개이고 ○○사단에서밧은것은 약이만개이라한다

愛婦本部長以下 白衣勇士慰問

各種慰問品도進呈

북지(北支)의 제일선에서 명예의전상을바든 백의의 용사를위문하려는 애국부인조선본부에서는 본부장 대야(大野)정무총감부인이하 간부일동이 십오일오후한시에 동부인회 유지원원을 방문하야 백의의 용사일동에 대하야 먼저 사랑스러운 유지원원아의 손으로 그린 자유화(自由畫)와 수공제작품을 선물하고 다음 대야본부장이하 일동은 각병실에 친절한 위문의 인사를하며 문병하고 본부장의 선물로서 금어(金魚)항수개가 곳간병실에 장식되엿다 일행은 동병원을나서 오후두시반 제이십사단장관저를방문하야 북지에잇는 황군장병의 진중위문품으로 떡일만개를 증정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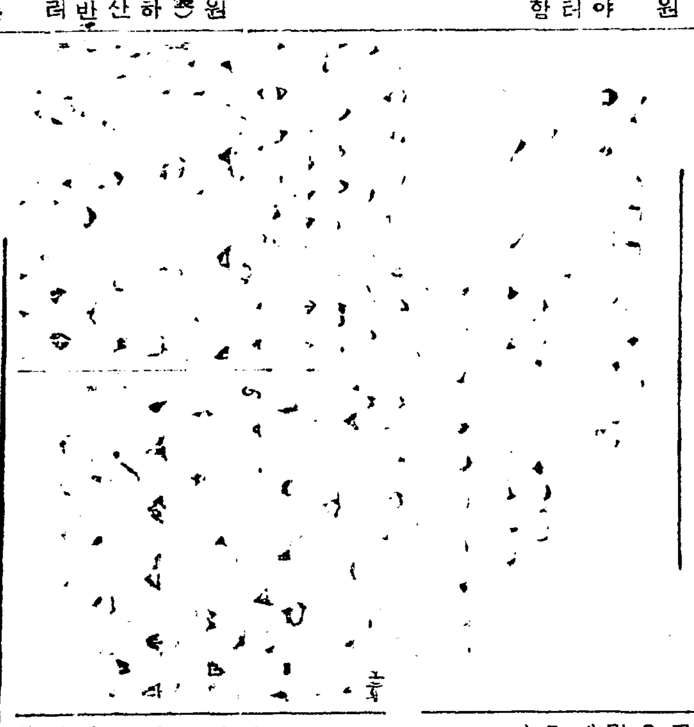
漁船拿捕件事調査次 佐藤書記官入京

今日總督府에서重大한協議

연해주(沿海州)방면에 출어중인 조선측어선을 소련(蘇聯)측관헌이 불법나포한 사건에관한 실지조사를 하기위하야 외무성(外務省)에서 파견된 구아국(歐亞局)서기관 좌등회우량(佐藤晦宇良)씨는 십오일오후 경성에도착하야 십륙일오전십시부터 총독부응접실에서 동서기관을중심으로 삼교(三橋)경무국장 송택(松澤)외사과장 기다관계관이 모히어중요한 협의를하엿다 즉금년여름륙일이래 소련측에나포된 조풍환(朝風丸)이하사십이척의그간석방교섭경과와 현지의어업과경비실정등을상세히 동서기관에 대하설명을하고 금후소련측에 대하여나포된 선박의 즉시석방요구와불법나포에대한 항의등에관하여 중요한 협의를 하엿다 이로서동서기관의 실지조사 개시는 중요한 외교교섭에 들어가는 중요한출발이 될것이다

朝風丸은釋放應諾

소련측에 나포된 선박중 조풍환(朝風丸)만은 강경한교섭에의하야 소련측에서도 석방하게되고 막사과(莫斯科)대사관에서 통고한바 잇섯다고 막사과전보로이미보도되엿섯는데 십륙일아츰 총독부외무부에도 외무성으로부터 불원간 전기조풍환이 석방되도록 교섭이 성립되엿다는 통첩이 들어왓다



順天梅山男女兩校 近近自發的廢校

兩校長歸任을기다려

【光州】 오래동안 문제시되여오든 남장노파관계학교신사불참배로인하야 지난륙일에 전남도당국에서는 광주수피아녀학교 (光州須彼亞女校)등네학교에 단연폐교명령을하엿다함은 본보에기보하엿거니와 종교계통이 가튼남장노교에서 경영하는순천매산남녀(順天男女)두학교도 가튼운명에처하여잇스나 당지에는 아직신사가업슴으로 신사참배문제는 업스나 불원한장내에 광주목포(木浦)와가튼문제가 당면할것을알고 학교당국자간에서는미리 자발적으로폐교수속을 하리라는데 매산남학교 교장 『구래잉』씨나 매산녀학교교장 『백매타』 씨두분이다 본국휴가로 평양(平壤)에출타하야 부재함으로귀임후폐교수속을 제출하리라한다

殊常漢은旅館大賊

강도포도진에 걸려든 도적─십오일밤 아홉시경 부내 신당정(新堂町)삼백오번지에서 거동수상한 청년하나를 검거취조한결과 전남 목포부 상반정(木浦府常盤町)이정목십이번지 맹갑수(孟甲秀)(二二)로 이자는지난 칠월사십일 의주통(義州通)일정목사십칠번지 의흥려관(義興旅館)에묵고잇는 리재명(李在明)이가 업는틈을다서 그의십부를 이라고 주인흉숙혀 이백오십원드러잇는 트렁크를 차저가지고 그길로 아현정(阿峴町)산속에가서 돈을끄내인후 트렁크는내버리고 이래종적을감추어는자이다

藥蔬장사울리는 巧妙한詐欺漢

십오일아츰열시십분경 부내혜화정(惠化町)이십이번지의 팔호리정형(李挺亨)의 집압에서 한남정(漢南町)오백구십일번지 배추장사 류준원(柳俊元)(二八)의배추일단을 다살터인데 십원짜리 거스름돈이잇느냐고하야 오원십오전을 바더가지고 그냥종적을감추어버렷다

이사건이잇슨지 십분후에는명륜정(明倫町)일정목 오십륙번지의상호 리덕승 (李德承)의집압헤서 도원정(道源町)이백칠십사번지 배추장사 허흥운(許興雲)(三五)이가 가튼수단에걸려 삼원오십전을 사기당한일이생겻다 동대문서에서는 가튼자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범인을엄탐중이다

危險한開門運轉

십륙일오전한시십분쯤 본정(本町)이정목 륙십팔번지아페서 경성(京城)『택시─』운전수 명롱학(明龍鶴)(二九)이가 차의문이열린채로 운전하야 가다가 본정이정목사십오번지 강본(岡本)(三七)이라는여자의이마에 기리한치가량되는상처를내이고 본정서에서 취조를밧고잇는중이라고한다

帝國大學을筆頭로 市內各專門學校 防護團組織

총독부학무국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을비롯하야 부내각전문학교에 방호단(防護團)을 조직하도록 저간지도중이든바 십오일까지 다음의각학교가 재적생거의전부를망라하야 조직하얏다는데 이외에나머잇는 사립전문학교도 곳조직하도록 방금지도중이라고한다

▲京城帝國大學 ▲法學專門 ▲京城醫專 ▲高等工業 ▲高等商業 ▲齒科醫專 ▲藥學專門 ▲大學豫科

八萬大藏經 印刷에苦心

十七枚의不足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大)에서는 경상남도합천해인사 (慶南陜川海印寺)에잇는팔만대장경을 박어서 만주국황제께 헌상하기로 되엇는데 현재해인사에잇는 팔만대장경은 팔만일천이백오십매 (목판)로 그중에십칠매가 중간에빠저업서저서 이것을 보충하여야할터인데 부족한십칠매중 십매는내금강정양사(內金剛正陽寺)에잇고 나머지칠매는 동경지증상사(東京芝增上寺)에 잇스므로 총독부학무국에서 사진사를 동경에파견하야 전기부족판칠매를 박어다가목판으로 새길터이며 내금강정양사에잇는 십매는그대로박어다가 보충할터인데 그경비는 약삼만원으로 이것을만주국황실로부터 총독부에 의뢰되어 경성제국대학 고교(高橋)박사가 준비중인데 동경증상사에서는 허락할는지 의문이라하야 학무국에서는 염려중이다

『노소미』列車 安養取扱廢止

철도국(鐵道局)에서는 팔월사일부터 렬차운전의 임시『따이야』를 실시한이래로 부산 신경간사이에 래왕하는 급행렬차 『노소미』는 부산 경성사이에는 대구(大邱)대전(大田) 안양(安養)룡산(龍山)등 네정거장에서만 려객을 취급하야왓는데 형편에따라 십륙일부터 안양역에서 려객을 취급하는것은 폐지하여버렷다

女裝한怪漢은 實相前科二犯

永登浦署서正體發見

【永登浦支局電話】 남자가 상투간이나 여자로변장하고『카페─』여급생활을하며 뭇남자를 롱락하다가 지난륙일 절도죄로 영등포(永登浦)서에서 취조를밧고잇든 자칭대판시(大阪市)출생 고삼유미(高杉由美)(二二)는 그후취조에따라 삼중현삼중군(三重縣三重郡)출생 전과이범 중서고장(中西高藏)(二七)이라는것이 판명되엿다 그리고 그가영등포에오기전 대전(大田)모『카페─』에서 시가오십원의 의복두벌을훔처간것이 잇다는데 이수배를 단서로 영등포서에서 취조를하엿든바 전기와가튼 전과까지도드러난것이라고한다

『籠中鳥』飮毒

십오일 오후세시삼십분쯤 부내미생정(彌生町)삼이번지 삼행루(三幸樓)에서 창기로잇든 장기현(長崎縣)출생의 천본(川本)미요(二一)가 자살하려고 다량의 칼모친을먹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곳 미생병원에 운반하야 응급가료중 생명에는 관계가업게되엿다는데 그는 지난칠월삼십일에 웅본현(熊本縣)에서 삼행루로 이천오백원에 팔려와서 지나든중 연약한 여자의몸으로 만흔채금을 갑흘수가업는 자기의운명을 극도로 비관한끄테 포주와 자기친우에게 유서를써 노코 썩어지는청춘을 차라리 자유의죽엄에 돌리려고 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裡里邑內에 持凶器强盜

【裡里支局電報】 십륙일오전한시쯤하야 전북익산군리리읍내동산리(益山郡裡里邑東山里)라정환(羅廷煥)의집에 흉기를가진복면강도한명이 침입하야 현금십원과 금반지두개를 강탈도주하엿다 소관리리경찰서에서는 이급보를밧고 곳서원을총출동식혀 범인을 엄탐중인데 아직까지단서를 못잡은모양이다

防空"마크"파는 怪少年搜查

町會代表라自稱하고出沒

요사히 비상시국을표방하는부정상인이 발호하야 긴장되민심에 오히려납분영향을끼치고잇는사건이속출하야 수일전 경무당국에서는 전조선경찰에 이방면의취체를 엄중히할것을 지시한바잇는것은 기보한바이다

수일전 부내인의정(仁義町)휴십이번지길가에 나히열네다섯되는아해가서서 자기는 인의정회사람이라고 방공(防空)마ー크를한개에 십전식이십여개를파럿슬뿐아니라 정내로도라다니며 강제적으로 다수히판사실이잇서 동대문서에서는 전기와가튼 지시도잇는터이라 그범인을엄탐중이다

少年을重傷코 트럭이潛跡

트럭正體를嚴查中

십오일오후령시이십분쯤 부내공덕정(孔德町)이십이번지압길에서 신공덕정 이십이번지에사는 리정운(李正雲)의둘재아들 리종태(李鍾泰)(六)가 놀고잇는데 봉래정(蓬萊町)방면에서 마포(麻浦)방면으로달려오든 트럭한대가 어린종태를치여 너머트린채 도주하여버렷다 종태는 왼편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에타박상을밧게되여 부근병원에 입원중이든바 전치까지는 삼개월을요할 중상을바덧스며 다러난트럭은소관룡산서에서 엄탐중이다

孔德町에行旅死亡者

부내공덕정(孔德町)산우에잇는 로동자숙박소에 나흘전부터 황해도(黃海道)에서 왓다는 로동자 이십삼사세쯤되여 보이는자가 병으로신음하고잇더니 십오일오후네시쯤 뜻밧게 급사하게되엿다 룡산서에서 검시한결과 병으로 죽은것이 판명되엿스며 신원을 알수업슴으로 시체는부에 인도하엿다

漢江에腐爛屍

십오일오후륙시쯤 부내금호정(金湖町)한강연안에 삼십오세쯤 되여보이는 남자의 부란시체가 떠잇는것을 부근을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야 소관동서에서는 곳 도에 통지하야 도경찰의와가티 검시한결과 그는 자살한것인지 타살한것인지 알수업서 시체는부에 인도하엿다

戰傷兵凱旋

북지전선에서 부상한 병사는 십륙일 임시열차로 평양(平壤)에네명 경성에 스물두명이 도착할터이라한다

十八日 十九日 兩日間·全館 大人三〇錢 小人二〇錢 開放
悲壯絶大雄篇 南風薩摩歌
藤原作文藝劇 마음에드시는대로
新着大每·朝日·讀賣 支那事變뉴ー스
團成社 告廣

스모ー大會 全朝鮮씨름會

廿二、三兩日擧行 咸興體育會主催

【咸興】 延期에 延期를거듭하고잇든 待望의 咸興體育會主催의 全朝鮮씨름大會는 마츰내 來二十二、三兩日間咸興女子高普校前廣場에서 開催키로되엿는데 一般部는 十八貫을 限度로하고 其以上은 重量級 未滿은輕量級으로 논느기로 되엿다 그리고 咸州各面對抗戰도 때를가티하야擧行할터인바 參加申請은 來二十一日午後六時까지 咸興府黃金町同會館으로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明治神競排球豫選

廿五日鐵道球場서

朝鮮排球協會와 朝鮮共同主催의 第十三回 全朝鮮排球選手權大會兼 明治神宮體育大會 朝鮮豫選會는 來二十五日 午後一時半부터 龍山鐵道局 排球場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參加申請은 來二十三日午後四時까지 朝新體育部로 하기를바란다하며 參加料는 每團體에 二圓이고 參加資格은 朝鮮排球協會加盟團體에 限한다고한다

全朝鮮硬式庭球大會

朝鮮庭球聯盟主催의 全朝鮮硬式庭球選手權大會는 來二十三、五、六의 三日間 龍山鐵道『코ー트』에서 開催할터인데 參加申請은 明十七日까지 鐵道局庭球部當氏에게로 申込하기를바란다하며 參加料는 單複戰에 各一圓 庭球聯盟加盟團體는 五十錢이라고한다

蘇聯選手猛躍

國際勞働者大會

國際勞働者스포ー츠競技會는八月二日白耳義의『안드와ー프』에서擧行한바 陸上競技에는 男女모두蘇聯選手가 優秀한 記錄을남기엇는데 重要한 記錄은다음과갓다

▲男子棒高跳 오소린(蘇)四米二〇 ▲女子走高跳 가르빗츠(蘇)一米五〇 ▲女子投砲丸 츠ー이카(蘇)一一米一五 ▲女子投圓盤 시니스코야(蘇)四一米四〇

運動界人事

▲金裕澤君(培材高普陸上部主將) 日米對抗戰에 出戰次로 渡東하엿다가 不意의 脚部負傷으로 參戰치못하고 지난 十四日午後三時四十分 京城驛着列車로 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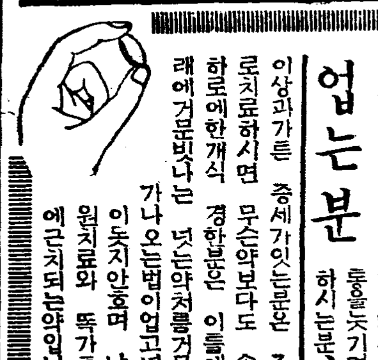
"자바라"選手負傷

『로스안젤스』에서열린 第十回올림픽마라손에優勝한 亞爾然丁의『자바라』選手는 伯林올림픽에서失敗한後 丁抹의一女性과結婚하야 歸米丁抹에潛在하고잇는데 오랜만에當地에서열린 마라손大會에出場하야 力走하다가 道路에말불負傷하야途中에棄權하엿다 그런데同選手의負傷은 危重하야 療養의結果가注目된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개엿다 흐렷다하며 京畿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二九度四
昨日最低 一六度六
今朝最低 一七度〇
今日正午 (二四度二)



다음과가튼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곳낫습니다

아래배 아픈것 — 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 아푸며 진땀이 흘으며 월경때면신열이나고 더욱아퍼서 멧칠식 눕게되시는분 월경의분량이적어지고 하고월경이고르지못하는분들 두통과현기가심한분……

대하증 — 처음에는 코가튼것이나오다가 차차 색이들며 악취가나게되고 자궁이몹시아푸며 오줌이자조며 국부가쑤시고절니며 가려웁고 열이나는분……

눈거미 — 머리털이 몹시빠지고 비듬이만허지며 눈거미가생기고 얼골에 잔리가생기는분……

자복업는분 — 결혼한지二、三年이되어도 아직것 아해를배지못하시는분、부부화합에 고통을늣기며 자미를모르시는분、류산하시는분、사산을하시는분……

이상과가튼 증세가잇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와세돈球로치료하시면 무슨약보다도 속히근치되오니 중환인분은 하로에한개식 경한분은 이틀에한개식이면충분합니다。재래에거문빗나는 넛는약처름거문물이흘러내리든가 직겨이가나오는법이업고넛키에도조곰도이상한기분이돗지안흐며 남플래자댁에서도 유명한병원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어데서 단시일안에근치되는약입니다

부인병이곳낫는 와세돈球 帝國大學病院婦人科使用

약한개三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인병근치의『와세돈球』는 각지에잇는帝大病院 赤十字病院을위시로 유명한병원에서 현재매일수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 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 제공한약인만큼 그신용과 우수한효과는더말삼드리지안어도 잘아실줄밋사오며 본보애독자에한하야 우표삼십전을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番

약가는 十二日分 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덕용은)十三圓이며중지하시면『부인병자택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부인병때문에사랑과靑春을일코쓰라린세월을보내시는분! 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치료하여근치식혀버립시다

實驗報告

『와세돈』球의힘으로 倍前한夫婦愛를어더

(加平) 玄英淑

結婚한지五年을 지나도록 子息을엇지못하야 시부모게뵈올낫도업고 뿐만안이라 남편은 늣도록소생이업서 매사에화만내고 밤출입이 잣드니 드듸여 소생보겟다는 명목하에취첩까지해놋코 낫에만 단녀가고 밤이면 매일밤가티 독수공방으로 소생업는서름이자심하던 생각을하면 아모효력도업는 량약을長服하면서칠성단 모서놋코 새벽이면 일직이 일어나서 공손하게 정성드리든생각을하면 지금와서 돌아보면어리석기도하고 또한편 분하기비할바업섯습니다……두번보내주신 고귀한 명약『와세돈球』로서 이럿튼 쓰라린서름은 봄날의 눈녹아버리듯이 사라지고서 벌서달이잇는 경도가업는지가 二個月이나됨으로 漢醫에게診察을바다보앗드니틀님업는수태라고하며 집안식구들도 모다큰慶事라고喜喜樂樂하고 더구나男便도 近間에는밤출입도 도모지안케되고 되도록과중한일을말고 몸을偷하게하지말라고야단입니다 그리고취가하엿든소실도 원만히돌녀보냇다고하며전과는 판이한 남편의사랑에놀내고잇습니다 지금은喜欣之中에 다만산달이빨리오기만고대하고잇습니다 姙娠中이라도連服할작정이오니 그에對한注意를下敎하시외 三十六日分만더보내주시기바랍니다

冷症이낫고 姙娠까지해

(鄭山) 李正實

(前略) 여름이되면 더욱심하야 허리가 녕하고 압허서뽑아내듯이 말못할 苦痛을해오든채가 冷症이남과한가지로姙娠까지하야 이깃뿜이야말로비할데가업습니다 一時는 內服藥坐藥할것업시 약이라는약은 모조리 먹어보앗스며 아래배를뜨듯히 하기에도퍽주의하엿스나 아모差度가업고하야 이症勢는 永永낫지아니하는것이로구나 하고생각되든 그때의슬품이야무어라고이로사룰수업섯습니다(中略)知人에게『와세돈球』의實驗談을 듯고도 그것도 다른약과마찬가지겟지하면서도 행여나하고 使用해보앗드니 아래배의압흠과 냉증이 아주 경하여지고 그악취가심하든 대하물도 점점업서저서 心神이輕快하여젓습니다(略)그리하야 여기에『와세돈球』에對하야感謝하야마지안는바이옵니다

朝鮮少年雜誌"少年"十月特輯號發賣開始

벙글벙글!"少年"十月號는 우숩거리特輯號! 나던중 그중재밋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단十錢(送料一錢)

昭和의常識

刀身二尺以上이大刀、二尺以下一尺三寸이長脇差、九寸五分가短刀

文那에서發表한重要[illegible]의[illegible]는거운다、本邦의兵書[illegible]하고잇다

水道는 [illegible]이經濟、다물어서쓰는[illegible]하고 [illegible]기름이大端들어

秋季로부터 一層더하는 仁丹의必要

消化와解毒 口香의常用藥

비타민B를가장만히含有
銀粒仁丹
御德用瓶入(二千二百粒入) 壹圓

胃腸의

消化機能의 障碍에對하야、가장自然的根本的治療의特效가잇고、仁丹常用家가 健胃整腸하야 恒常健康함은 그實證이라할수잇습니다。

胃腸의衰弱은 消化不良이되며 同時에 食慾不振이되야 먹고십흔생각이업스며 먹어도 맛이업고 그래서 食物의 停滯感이가슴에 長時間保有해잇는 것처럼不快한것은업습니다

仁丹은 이症狀에對해서 먼저胃壁에 適度의刺戟을주고、胃自體의活動을促進하는 結果、自然히胃液은調節되고 消化力의强化는 食慾을일으켜서더위뒤에 흔히衰弱해진요지음의 胃腸恢復에는 的確한效果를볼수가잇습니다 또 初가을부터 增進하는 食慾에 맥겨서過食過飮하는結果로걸리기수운胃病을 防止함에는 食前食後에 仁丹은 반다시업지못할것입니다

榮養의

不足을補充하고、特히 酷暑後의疲勞、病弱、虛弱의恢復에는 仁丹으로 充分한 期待를어들수가잇습니다。

身體가 느른하고、食慾이업고、게다가恒常머리가흐릿해서 記憶力이減退하고、甚하면 根氣力을일코 숨이차는等、이虛弱的、退嬰的不健康生活은 此際一日도 放任할수업습니다 이原因으로는 다른餘病이업는限먼저榮養不足에依한一般衰弱狀態입니다 可恐할神經衰弱도또한이症狀으로 由發하는일이각금잇습니다

仁丹에는 動植物兩호르몬비타민B사후랑朝鮮人蔘의各榮養을 有効케配劑하고 特히사후랑은 服用後곳賦活作用을奏功해서 元氣充溢한効果는 第一로 仁丹에含有한 榮養價 의優秀함을眼前에 顯現케한것입니다

頭痛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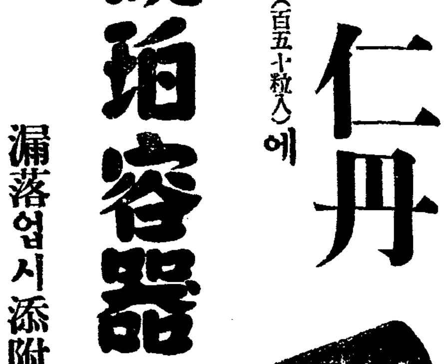
原因인腦鬱血을即時消退해서 그効果를가장速히發揮하는外에 頭重、上氣、眩暈、船車醉等에 仁丹은 獨特한 藥効를가지고잇습니다

일로부터 만흔感冒로찌빗찌빗하는 頭痛、頭腦酷使等疲勞로오는 劇烈한頭痛
上氣로오는 耳鳴이伴하는 不快한頭痛
아프지는안허도 朦朧하야 明晰치못한머리

어느것이나 다 仁丹을 곳잡수어주십시요 馥郁한口藥은 全身을爽快케하야 血行을旺盛케하고 特히腦鬱血의消退에는 仁丹만이자랑할수잇는藥効를가지고잇습니다 도한 仁丹은 頭腦의 疲勞를恢復하야 머리를明晰케하고 記憶力을强케하는 故로 一般勤勞家學生에 絶對업지못할必携藥입니다。

只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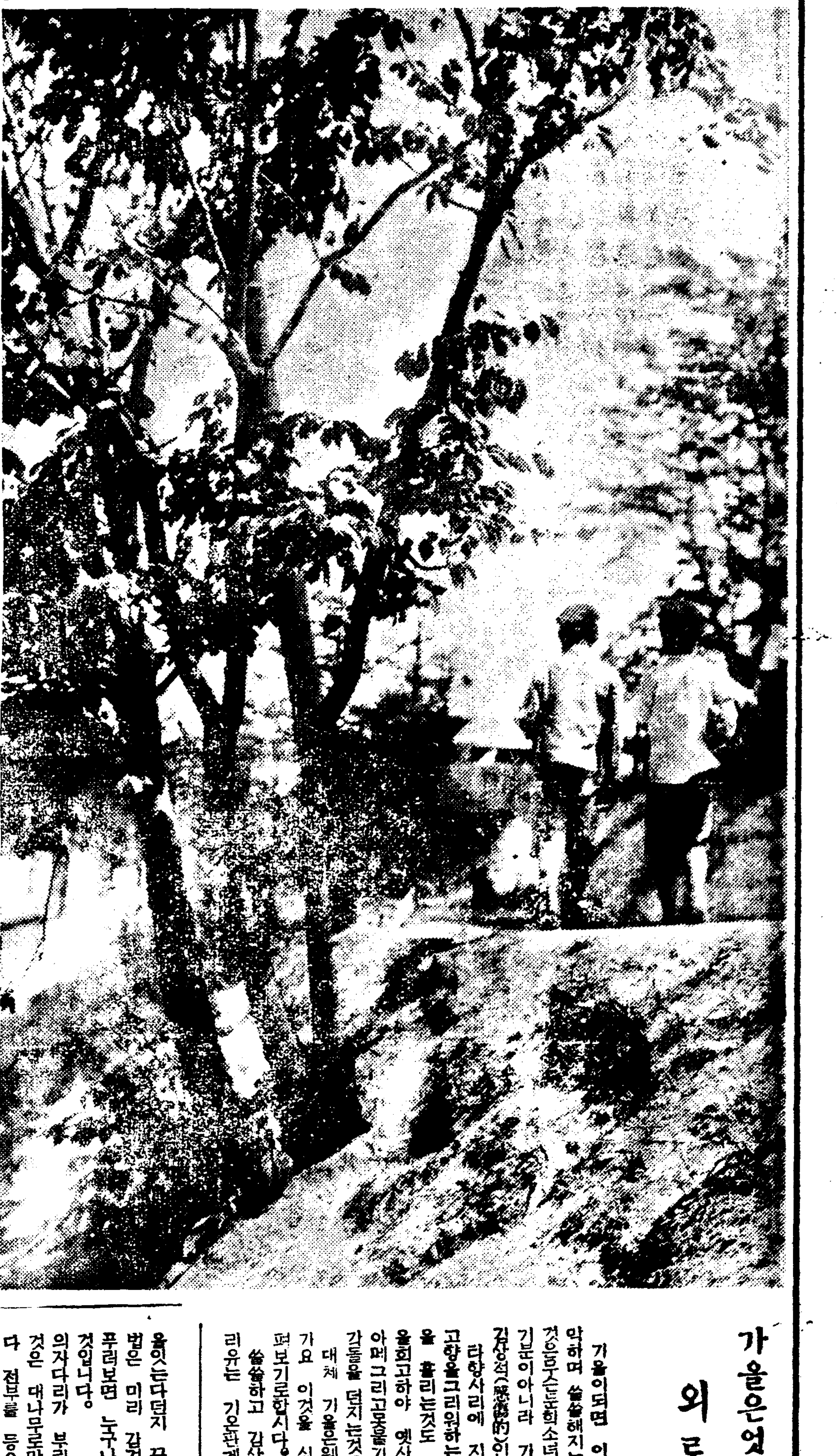
로-즈 仁丹 十錢包(百五十粒入)에 美麗한 **琥珀容器** 漏落업시添附



銀粒仁丹の種類

御試用分(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一千粒) 五十錢
御德用瓶入(二千二百粒) 壹圓
★
ロ-ズ(百五十粒) 十錢

本舖・森下仁丹株式會社



꽃庭

까다로운영양식

여간한 형편엔 엄두도못낸다

쌀·콩·배차입사·며루치의네가지 이것만먹어도되는것

영양분(營養分)을섭취(攝取)하지 안해서는 건강에해로운것은 누구나 다 아는일이요 또 영양분이 만키로는 쇠고기、달걀、시금치 도미도등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일백그람에 카로리가 얼마라는등 저것은 담백질、지방、비타민이 만타는등 아모리 떠들어봐야 안 먹고시퍼 안먹는것이 아닌이상에는 소용이 조금도 업습니다 늘 영양만찻는분들의 충고대로 음식을 해먹으랴면 한사람이 한끼에 적어도 사오십전 내지 일원이나 들게되지 안습니까? 그러케하로세끼를 칠때는 일원이상 내지 삼원이나되니 그러케 전집안식구를 칠때는 얼마나 들겟습니까? 모도다씀때업는 소리가아니면 당치안흔잡ㅅ고대입니다。그러한 충고는 한달의 수입이 한백여원이나 되는이라야 들을수도잇지 그이하로는 어림반픈어치도업는것입니다。

×

또 설사그만한 생활비가 잇서서 그러케실행할수가잇다기로니 어떠케 밤낫쇠고기 달걀 시금치 도마도만먹고 사는수가 잇습니까? 몃칠이 못지나서 사랑양반은 상을 찡그리시고 애기네는 짱짱거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는 근본으로 돌아 가서 영양식(營養食)은 대체 어떤정도로써 될수잇나를 따저보십시다。좀 바꾸어 말해서 최소한도 무엇 무엇을 먹으면 될까를 알어 보십시다。물론 거기는 한가지 조건이 잇스니 그것은 꼿편식을 말하야 된다는 것입니다。이왕 말이 낫스니 말이지만은 편식이란 영양섭취에 무엇보담도 나쁘다는것을 기피 느끼어서 편식을하는눈도 빨리 그버릇을 고치도록해야 됩니다。

×

그러고는 보통으로 우리네가 만히먹는 음식의 재료를 들어야할텐데 그러다가는 한정이 업는 노릇이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만히 쓰이는 재료로 네가지만 들어 두겟습니다。그네가지란 무언고하니 쌀、콩 배차입사 며루치랍니다。이것만 늘 먹으면 영양에는 별 고장이 업습니다。그연유를 아리켜 드리기 위하야 간단한 설명을 여쭙겟습니다。

쌀。우리네가 주요식물로 먹는것이 더다시 말할것이 업고 차리라 쌀에부족되는 것을 다른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콩。콩이나 콩으로 맨든것이나 다마찬가지로 담백질을 비롯해서 영양분이상당히 풍부합니다。

배차입사。무와가티 먹으면 더 조습니다。줄거리도 조흐나 입사귀가 더 조습니다。

며루치。다른생선이나 고기에 비해서 영양분은 결코 적지 안코값은쌉니다。

×

그다음으로 섞거 먹는 분량인데 그것도 밥을 먹는량에 딸아서 서로 갓지 안할것입니다。가량 한끼에 세공기를 자시는이라고 할찐댄 며루치는 이십오몸메 배차입사오십몸메、두부십오몸메쯤으로 훌륭합니다。거기다가 되장을 다섯몸메쯤 너흐면 더 훌륭합니다。

가을은엇제서 외로워질가?

거긔는세가지원인이잇다

가을이되면 이상하게도 적막하며 쓸쓸해지는것입니다 이것은무슨문학소녀(文學少女)의 기분이아니라 가을이란대체로 감상적(感傷的)인절후입니다。타향사리에 지치진나그네가 고향을그리워하는 나머지온몸을 울회고하야 옛사람의모습을눈아페그리고꿈을기에안겨서 자갈들을 던지는것도 이때입니다 을 흘리는것도 이때에지난날 대체 가을은웨이다지쓸쓸할가요 이것을 심리학상으로살펴보기로합시다。

쓸쓸하고 감상적인 제일의 리유는 기온관계입니다。기온이 노파지면 사람은쾌활해지고 양명해지나 기온이 나저지면 울울해지는것이니볼과가티 점점 더워지면 사람은양명해지고 그와반대로 가을처럼 기온이 점점 나저지면 사람은 울울해지는 것입니다。

제이의 리유로서는 아모리 문화가 진보되여잇다하더라도 그이전의 미개시대(未開時代)에 배양된 동물적본능이 숨어잇다는것은 할수업는일입니다。그시대——다시말하면 인류가 문명되지안흔 태고시절의 인류는 동물과가티 벌판이나 산을 뛰여다니며 생활할때는 치워진다는것은 대단히 우울한일이엿습니다。

대체 사람의몸은 더위에는 상당한 저항력이잇스나 치운데는 대단히 약합니다。따라서 입고거처하는것이 오늘과가티 발달되지못한 태고적에는 겨울이된다는데는 여간걱정을가지지안햇스며 오늘날과가티 식물을 저장하는법을 모르던 그때식물이 끈허지는데다하야 곤란을 바더왓습니다。

그래서 치위를 방어하고 식물의 념려가 업는 지금에와서도 이러한 태고적 시대의 관념이 잠재하야잇다가 그것이 오늘날「가을의감상」으로 변한것입니다。

다음에 제삼의리유는 태고때인류는 아페서말한바와가치 가을이되면 어떠케 겨울동안에 자기의몸을 보전할가하는데마음을 쓰던관계로 제일만을돌보기에 남의일이야 어떠케되던 말던상관하지 안튼대단히리기적(利己的)인 때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고독해지는것입니다。현대에 내성이라던지 리지(理智)적인것과맛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로말미아마 가을은 쓸쓸하고외로우며 감상적인것에 흐르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응하는정도는 각개인에 따라서모다다를것이요 과민한사람이나 생활에곤난한 사람이나 자기처지가 딱한사람이면 가을의감상을 더굿세게 늣길것입니다 그리하야 이러한 외로움과 감상에서 버서나랴고 애쓰는 나머지에 뜻하지안흔 비극을 가저올위험이 잇습니다。(사진은 쓸쓸한가을교외)

래년에도 쓰도록 등의자간수

자칫하면버리게된다

서재나 응접실에 노혀잇는 등의자는 가을이되엿스니 치워두도록합시다 위선의자전체 특히 손과 머리의 부분에 물을뿌려서 끌로잘씻치십시요 류산(硫酸)이나 그밧게약품을 쓰는것은 무척어려울뿐아니라 등을 해롭게하며 빗갈을 변케 하는것입니다 물이 축축하게 녹앗던것이 다시 마르면 등피(藤皮)는 느러젓든것이 대롱대롱하게 올너붓습니다 올려서 될수잇는대로 팽팽한면을 회복시키십시요 등을 가미노흔것이 한곳 치풀려진데가잇거던 이것은 간수하기전에 반듯시 수선해두어야합니다 등의자만드는집에나그러치 안호면 가구점 가튼데가면 이겹질을살수잇스니 집에서 수선하야도 되는것입니다 줄

그러나 등심(藤心)은 그러치도안흠으로 안즌자리가느러젓거던 밋바닥을 치밧처 올잇는다던지 꼿줄가지는방법은 미리 감겨잇는줄을 풀러보면 누구나 알수잇는 것입니다。

의자다리가 부러젓거던 이것은 대나무로만든다리입니다 다 전부를 등으로만든것은 결코부러지지안습니다 부러지고난 자욱에 나무대나무를 꼽고 아조찬찬히 굿게등을감어두십시요

칠두어야합니다 등에는 습기는 대금물입니다 오래두면 곰팡이가스러서 나중에는 등이 모다 토막토막 잘너지는수가 잇습니다。

등의자의모양을 도우느라고 껍질을 벗기고 물감을 드린것이나 등심을가지고 만든것은 물기가업시 마른뒤 히러쓰를 솔로두세번 칠해

파손된것을 그냥두어서는 점점 커저서 나중에는의지가 못쓰게되고 말것이팍 곳처두어야 합니다。

물로 씻처버린 의자는볏살에 잘쪼여서 잘마르거던 습기가 업는데나 천정에다 두는것이 조습니다 이러케 럿쓰칠을 해노흐면 래년여름에 새삼스러히 칠을하지 안코도 곳쓰일수잇습니다。

여름에 쓰든이러한 기구들을 그냥잘간수하지안흐면 래년에는 모다못쓰게됩니다

가을어린이들의 과식하는버릇

소화잘되는음식을주자

서늘한가을이되니 자기자신이 생각하여도 의외일만치식욕(食慾)이왕성함에 놀나지안켓습니까

이것은 그다지이상한 현상도아모것도 안입니다。다만 여름동안에는 누구나 몸이약해저서 필요한정도의음식을 먹지못하얏습니다 그러나 기을이되여 신체가 조화진으로 자연음식도잘먹어지는것이니 당연한일입니다

가령 열살가량되는 어린이를 표준으로 하야보면 남자는 대개 一七〇〇카로리-녀자는 一四五〇카로리-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여름에는 오퍼-센트가량주러드는것입니다 즉 음식의분량은 조곰만허지는것은 당연하나 그러타해서 갑작히 식욕대사가 잘되고 여름허약증이 낫기도전에 그냥 아모게나 더퍼노코 음식을 먹어치우는것은 대단히 조치못하며 이것이 위장병위확장의 장본이되는것입니다

어린아히에게는 특별히 이점을 주의하되 자칫하면 식욕대로 먹이다가 나중에는 어린아히에게 해로운 편식의 습관을 가저오기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케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 위하야 소화가 잘되고 영양가치가만흔 음식을 여러가지로 료리하야 먹이는것이 어머니되신분의 가을철임입니다。

여름에는 도라다보도안튼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그대로 가을이되여서 먹기실혀지는것은어른에게도 흔히 잇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단히 조치못합니다。

또한 일정한음식시간이 업시 그냥배고프데따라서 음식을욕심내먹는것은 몸에고장이나며 또한 적당한운동도 하지안코 과식하는것은 몸이지나치게찌는장본이됩니다 가을이되여도 식욕이전연 나지안흔것은 어디나 신체에결점이 잇는것이니 여름허약증이 그대로 결핵(結核)이되엿던지 그밧게소화기가 약해저서 음식을소화하지못하고 설사만하는것입니다。

더욱히 어린아히들이 식욕을 내지안흔것은 건강치못하다는 증거이니 말도할줄모르는 짐승가튼 그들의건강을 어룬이 잘주작하여서 도와주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선이나 푸성귀도 대단히만히나오매 신선하야 구하기쉬울때입니다

그러므로 재료도 편벽하게 놀한가지만가지고 먹을것이아니라 이것저것밧구어가면서만히들먹도록 하십시요

과일에는 포도가조흐나 이것은 어린이들에겐 조치못하며 배는 설사를 하기쉬우니 과일은 비타민도만코 소화도 잘되는 사과를 만히먹이도록 하십시요

감이나 밤은 훌륭한맛을업세버리고 먹지안호면 소화가 안되고 위장을 탈내기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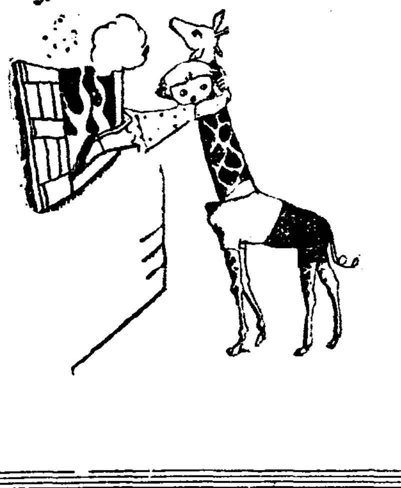
더욱 감은소화가 잘안되는것이니 만히먹으면 해롭습니다。

우리차지

기린

이쁜네집에 불이낫습니다。이쁜이는 들창으로 내다보며 사람살리라고 소리를 질럿습니다。기린이 다름박질와서 얼른고개를 내밀엇습니다。이쁜이는 목에 매달려 살아 나왓습니다。

(글쓴사람 윤노마)



中編小說豫告

人生特急

春城 盧子泳 作
木朗 崔根培 畵

독자여러분께 절찬을밧는김말봉씨의 장편소설『찔레꽃』은 아프로 멀지안어 끗나게되는데 그다음으로는 춘성로자영(春城盧子泳)씨의 중편소설『인생특급』을 여러분께 드리게되엿습니다。조선에 신문학이드러오고 얼마되지안헛때 산문으로 그당시독자를 열광시키든 춘성이 오래동안 사색(思索)을 싸흐며 붓을 멈추고 나머지에 지금여러분의 아페나타날『인생특급』을 어더엇습니다。

작품의일단은 작자의말에서 삽작하실것이며 여기에 신진화가 목랑최근배(木朗崔根培)씨의 삽화는 작품을더욱빗내게할것을 기약하야 마지안습니다 이소설은 구월하순『찔레꽃』이 끗나는 대로 곳여러분의등잔미테 펴처지기시작할것입니다。

作者의말

인생의 행로(行路)는 피와 땀의 연쇄(連鎖)라고 합니다。그러나 나는 이소설에서 그 피와 땀을 다시 꿈과 힘과 아름다움으로 채색(彩色)하고 거기에 어떤 영웅(英雄)적 행진을 가미코저합니다。그러나 이소설은 순수(純粹)한 예술적향취보다도 누구나 읽어서 흥미를 늣기도록 통속적(通俗的)으로 쓴다는것을 말하여둡니다。그러나 작자의 이 생각을 어느정도까지 지면우에 그려노흘는지 이것은 작자로서 가장 우려하는바입니다。원래재조업는 작자이나 힘것은 노력을하겟습니다。

(사진-작자로자영씨 (左)최근배 (右)씨)

사과와레몬으로 과자만드는법

손님대접이나용용이감

손님대접이나 어린아히의 용용이로 쓰이는 사과와레몬의 과자를 만드러보시지 안흐랍니가 식료품점에서사 쓰는것보다 경제도되며 취미로도 대단히조흔것입니다

『애풀·폰치』 사과여섯개를가지고 껍질을벗겨서기리로 넷에쪼갭니다 그리하야 씨알을모다버린다음 다시가늘게써려서 김다란 힝아리에담고 설탕열몬메와레몬을 짜서그물을 한숫가락 부은뒤 그우에다가 반되나 될 뜨거운 백비탕을부어서 뚜껑을 꼭다처두엇다가 충분히 식은다음에 적당한컵에 따루어서 스푼과 함께 내여노흐면됩니다。이분량이면 대여섯사람대접은 념려업습니다。

『아이스·애풀』 이것은 앱풀폰치와가치 사과의 껍질과씨알을버리고 사과살만을추려서가늘게써릅니다그리하야 그것을 세홉가량드는 주전자에너허서 물을조곰붓고 불에언저서 익힌다음찰거릅니다 그리고 꿀이나설탕물을 삼홉 너허서 끄린다음 전에 걸너둔 사과와석거서 식힙니다 다식은뒤에 레몬집을 두숫가락짜서 너코 푸리-사나 다롱(茶筒)으로 이것얼게합니다 이분량이면 열두사람의대접을할수잇습니다。

『앱풀·메리』 여기에쓰는사과는 쌀물것이니 그리조흔것은 필요치안습니다 신맛이 만흐면 되므로사과여섯개와 레몬한개 생크림한홉을 준비하십시요

위선 사과는겹질을 벗겨서 네쪽을내고 씨알을버린다음 엷게 써르십시요

껍질잘벗겨버린 레몬과물두숫가락에 설탕을 조곰너허서 주전자에 너허서 사과가 무르도록 삶습니다

그래서 레몬집을 짜너코 설탕을타서 쟁반가튼데다가 내노흔뒤 크림을 구워에부어서 먹습니다

이만한 분량이면 륙칠인의대접을 할수기잇습니다。

오레손박사의 피서법공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되엿다고는하나 아직도 더위서 못견되는 미국에는 그나라의 국민건강국의 오레손박사가 다음과가튼 피서법을 제창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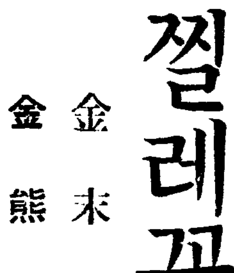
검은빗갈의양복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므로 더말할것도업시 여름에는 조치못하나 그밧게도 첫재로 태양이 올너오기전에 이러날것이며 더욱일이밧분사람은 아침전부터 일을시작하야 낫전에 다해버리고 낫후에는 종용히잠자는것이조타고 하엿습니다。

그다음 잠은 조곰자는것이아니라 아조더잘수업는정도로 흡벅잘것이며 밤으로 출출추고도라단이는것은 대단히 해로운일입니다 음식은 극단으로 더운것과 극단으로 차운것을먹지말도록 하는것입니다

長篇小說

찔레꽃 【120】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찔레꽃 (七)

이옥고 그들의아페는 차가나왓다 조두취가 자기서재에서 손님에게 차를내노흘때 쓰는그릇은순전히은으로만든 그릇들이다 민수는 이즐거운 우리안에서 살진도야지처럼 누어잇는 조두취의 영화를생각해볼때 그발아래 짓눌려신음하는 약자들의운명이 하나식생각이낫다

경애가 손수차를따르고 크림을떠러트리는동안에 정순 근호 옥란의얼굴들이 차레차레로 민수의눈아플 시처갓다

그러나 처음드러올때보다 칠신기분이조치못하여 진뜻한 경구가 잡자코 더운차만 마시고 잇는것을볼때 민수는속으로 『가장불행한 제비를뽑은것은자네로세』하고 고개를끄덕엿다

경구는 차를마시면서도 동생가아버지의 벙싯거리고 안저잇는 얼굴이 다맘에들지아니하엿다 더욱이 민수라는 젊은이가 이토록 얼굴이두꺼워든가시퍼그는 정면으로민수를보기가실혓다

「다들애복스러운데 오직 정순씨만 아아 정순씨만」

경구는 눈시울에 고이려는눈물을 뜨거운차와함께 삼켜버리고 벌덕자리에서 이러섯다

「웨 넌 벌서이러나느냐」

하고 두취는 련해 싱글벙글 우스며 아들을치어다본다

「네 좀하다뭇일이잇서서 미처 마처노아야 되겟습니다」

하고 민수에게 손을내밀며

「자그럼 천천히 노시조」

하고 방문쪽으로 거려갓다

「애 경구야 난 오늘밤 네게 애기할게 잇스니 계좀 안거라」

하고 두취가 아들을 붓드럿다

「그럼 옵바가 바쁘시다니 우리가먼저 이러서조」

하고 경애가 민수를 도라보앗다 민수는 이러서서 두취아메삼십도로 허리를 꾸부려보인후 경애와 나란히 복도로나와왓다

「아직 시간도 일르고하니 제 방으로가세요네?」

하고 경애가 잇끄는대로 민수는 잡자코 경애의뒤를 따랏다 그의 제이단적 복수의 끌-이 눈아메각가히 보이는듯하여 민수는 야릇하게우스며 경애의방으로 드러섯다

두취의 서재에 나머잇는 경구는 엉거주춤 교의에안즈면서

「무슨말슴이시얘요?」

하고 천천히 아버지를 치어다보앗다

「옴 다른게아니라……」

두취는 한는말을 멈추고 담배를끄내 불을부처 두어목음 연기를 뿜더니

「내가말야……음-약혼을 햇단말이야」

하고 아들의눈치를 슬적 살피는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약혼을하섯세요?」

하고 경구는 기계적으로 아버지의말을 되노앗다

「응 니로써는말야 너、어머니의소상도지니기전에 약혼운운하기가 좀 거북하다만 사실 아이들을위하여서말야 일을좀 급히서둘럿서 너는 내장자니까말야 누구에게보다도 네게 다먼저 통정을하는게니말야 그좀알란말야」

「…………」

두취는 잡자코 고개를숙이고안저잇는 아들의머리를 내려다보면서

「저편 신부될사람……참 네게 모가 될사람은말야 너도잘아는사람이야 벌서 반년이나한집에서갓치 숙식을하엿스니말야……」

하고 두취는 손에들엇든담배를 기운차게 빨기시작하엿다

「반년이나 한집에서갓치 숙식을하엿다?」

말속으로 부르지즌경구는 일순쇠몽치로 정수리를 어더마진때처럼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싸면서

「그럼 아버지 그사람은 대체 누구란말입니까?」

하고 밧분하는 경구는 어금니가 딱딱마조치도록 전신이 떨리기시작하엿다

「나이는좀 어릴지몰르겟다만……아이들이 그러케 따를수가업단말야……너도물론 찬성할줄안다만……안정순이다 어떠냐?」

「…………」

잡자코안젓든 경구가

「아버지께서 단지 약혼을하시겟다고 생각을하고 게시는말슴이죠? 물론 약혼은 아직되진안헛습지요?」

하고 무서운선고나 기다리듯이 살기찬눈으로 아버지의 입을지켯다

「아-니 벌서 정햇서 인제곳결혼식을할테다 홋달 그러타홋달조생넘하려고 생각을하는데……어떠냐?」

경구는 달겨드러 아버지의멱살을 낙구처고시픈충동에 몸을떨면서 그는 미친사람 모양으로 허둥허둥도로 뛰어나왓다

어떠케걸어서 자기방까지갓는지 경구는 방으로드러가자말자 부들부들 떨리는손으로 장을쇠로 문을잠가버렷다

補血强壯
造血아우트호르몬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各帝國大學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グアヤブルトーゼ
コール
ネオブルトーゼ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B1261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登山篇 (十)

民始道源의正幹

光明理世의垂示와訓讀

李殷相

白鹿의 說話로서 白鹿潭의 名字由來를 이야기하는 記錄을 그대로 쪼츠이지마는 狩獵時代의面貌와 仙道의 風味가 잇는채로 그說話는 白鹿이라는 漢字名이 생겨진後의 이야기입다를이오, 그原名은다른것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漢拏라는것을『하늘』로 解釋하는것과아울러 白鹿이라는것은『밝늬』의譯字로 보고저 한다. 光明이란것이 이미 朝鮮民族의 古神道에잇서서 標語와 中心이 되어잇슴은 여기 重言을要할것도업는일이요또『白』字가『밝』의代表譯字임도 새삼스러이 說明할것이업다. 白鹿潭이란것은곳그대로『밝늬』이니다시이것을漢字로말한다면『光明池』라고할것이다. 『光明理世』의 本面目이 여기와서도 나타나고, 『弘益人間』의 根本義도 여기와서나 타난것이니, 깁고, 놉고, 榮光스럽고 神聖한 뜻을 이저버리고 무더버리고, 남의글字를 함부로 집어오고, 남의思想을 집도안코 덧쓰려 덤벗든것이 어떠케나 어리석고 딱남번한 일이엇더냐. 아니게아니라 朝鮮의厄災가 남의글字 때문에 오즐아들고 남의思想때문에 시들어버린것을 생각하면 얼토 당든안흔 白鹿의 두글字는소리나게 동댕이를 처버릴일이다.

古信條를 잊것는다하야 목針과 補綴이 엣百番 엣子番 은이야기로 돌리는者에게 頂을 나렷건마는 오늘도 물어보면 비우슴사람바게 업는것이니 생각할스록 원통하고답답하지 안호냐.

光明思想의 正幹은 붓들어보지도아니하고 버젓한내生活을구르나 남의語源에 拘泥마 치러드는것이 떠하고 아픈일인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山河에, 이歷史에, 이民俗에 이言語에自己의 最高信條를기저다바친『三一神誥』이 엄然하게도明瞭하게도 的的하고當當하게도 적혀잇슴을 이젓다는者, 아니라는者, 모른다는者, 아니 버린다는者, 웃는다는者, 아니 그래 돌땅하고 등진다는者가 누구냐는말이다.

지금 이『밝늬』가에안즌 우리로하여금『光然滿了』의 至境을 누리게하는것이 어찌저 俱舍論이나 智度論이 일러주는 雪北香南의 無熱惱池만못할것이냐.

神話의靜域, 神理의天竺만을 걸내고 우르고 돗보고 짓거리는동안에『밝늬』의 神話와 神理를 적고傳하고 생각하고 꾸미고 하엿으면 夜城坊曲이 건드리는대로 山海經거리요밝는대로 十洲記가 될것이엇다 그러므로 眞實仙源의 祖宗이라는 西王母의 所治에만『天人淸濟 不可具記』가아니라 오늘여기『밝늬』가에 모여안즌 우리自身이 곳 天人일것이니 宇宙에 奧義가 감추엿다면 그것도 오늘여기 우리손이 그 잘을쥐를 열것이요,天地에 密旨가 숨기엇다면, 그것도또한 지금여기서 우리가슴에 맛들 수잇슬것이다.

제손에 가진寶物가 아무런 나가 지닌것보담 못하지 아니하건만, 東西를 헤매며 남의 糟粕을 貪내는것이 眞荦子의애 까닭업는 窮孫의 얼골을 처들지못하게하엿나니, 이제歎想하라. 大願을세우라, 民始와 道源을 깨닷고 眞實의길을 向하야 莊嚴한行步를 約束하라.

從今欲學乘消術 歸去人間莫惧遺 (金緻의漢拏山絶頂詩)

古人은 여기올라 이가티仙術을 願하엿스되, 오늘우리는 이天山神池의 訓讀, 垂示를 밧들어 생각하는비 잇서야할것을서로마주보며 期約하고 바라는것이다.

그래도 아직 頓然한 解悟를 못가질가보아 霹靂한 山靈마저거치고, 寂寞한 天風아래『밝늬』의 眞彩眞德이 나타난다 아무리 鐵根人著기로, 光明歸依의 眞理를 모른것느냐. 이래도 白露證悟와 修行을 못하겟느냐는듯이 어쩌면 一點雲霧가자취조차업시 날아가고 照耀한多합에 白波紫光이저려케도 神妙하냐.

『밝늬』의正體와 그精神의示顯을 단一分間만 보이시더라도 우리記憶에는 至誠의感格으로 두고만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할것이어늘, 그저 실토록보이시고, 속속드리 보이시는滋化의 特絶한 恩典은 고맙고 느겹기 形言할길이업다.

光海元年에 判官으로來島한 南峰金緻의 遊山記에 그가 이 絶頂에올라왓을때 雲霧가 거치어 天掖地秘의 形狀을 窮探케되매 道者然의胡僧 修煉이『진실로仙骨이아니시면 天氣가이러할수잇스리까』하더라고 하엿거니와 그날의 明府 行次를 따라와 瞻仰하던 修煉의말을 그대로 오늘누리가 가저와야겟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자리에서 分外로 누리는 이淸福을 다만 저『仙骨』이라는 鄙暇한文字로써만 說明하려아니하고 朝鮮사람의갈길 人生의 갈길을 알고가라는 大主宰의 大啓示로 보거니와 山上淨畔에 저물어가는夕陽과함께 나는 無限한感激과歎想속에 잠기는것이다.

(사진은白鹿潭畔의一行)

學藝

詩와道德과生活

『렌의哀歌』『石榴』『分水嶺』等 (三)

崔載瑞

그다음 地上에서 銀河의牽牛를 誘惑하는 삐ー나스를그린돌라운一節이잇다。

戀人과떠러저 쓸쓸히지내든牽牛는 誘惑을받든지 나흘만에드디여 前後생각업시 白鳥를타고 美와 快樂의女神압으로 달려왓다。여기서 우리는 作者의 숨길수업는 道德的意圖를 볼수잇다。

따에나란牽牛는『불꽃은 눈초리와 피여오르는微笑』로써 모든生命을 사로잡는 妖魔삐ー나스의 抱擁과愛撫 或은脅迫과誘惑에잇슬리며 或은 情熱과甘露의 花園과 金잔디平野에서 享樂과悅惚과 그反面엔 背叛과罪惡의 一年을 지낸뒤 織女와맛날七月七夕의 아츰 銀河에서들려오는 실마리가튼 멜로디ー에 忽然히깨닷고 때리한自己自身을 이러트려 놀라깨인妖女의 손목을 뿌리치고 다리白鳥의 날개를비러 天上으로 날러와다。

牽牛가墮落한動機ㅡ그의孤獨의悲哀ㅡ는第二部에서 놀날만큼透徹한 筆致로 描寫되엿다。이것은 古來의傳說그대로의 飜作이며 三部中 가장 아름답고 印象깁흔 一章이다。一年에한번도라오는 七夕이아니곤 愛人을만나볼수업는牽牛의 切切한心懷가純粹한朝鮮말과朝鮮的"이메지"로서 表現되엿다。一部分만引用한다는 不充分한方法을버리고 讀者스스로 이一章만이라도 읽기를勸하는바이다。

第三部는 悔恨의牽牛를 그렷다。다리우에 쓰러저 自己를苛責하든 牽牛는 드디여 破滅을부르지즈며 虛空에몸을날려 地球우으로墜落하는데서 前編은 끗난다。

이詩에는 道德的意圖가分明하면서도깁흔"倫理的"리아리티에"到達치못한느낌이잇다。牽牛가浪漫的敍事詩의 主人公에서 흔히보는 歌美主義를 一步도떠나지 못한것은 現代詩人으로서 만이생각할바이다。

三、『分水嶺』

華麗한 毛允淑氏의詩와 어떠ㅣ인가"아카데믹"한林學洙氏의詩를 보아온 讀者는 李庸岳氏의『分水嶺』에서 素朴하고 沈痛한生活의 노래를 드를것이다。

北쪽은 고향
그北쪽은 女人이 팔려간 나라
머언山脈에 바람이 어려보를때
다시 풀릴때
시름만은 북쪽 하눌에
마음은 눈감을줄 몰으다。
(『北쪽』)

滿洲는 이詩人에잇서 生活의捲態이엿고 인스피레이숀의源泉이다。

우리집도 안이고
일가집도 안인 집
고향은 더욱 안이곳에서
아버지의寢床업는 최후 最後의밤은
풀버렛소리 가득차 잇섯다
◇
露領을 단이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둔 말도 업섯고
아무울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콜리스크의밤도 완전히 이즈셧다
목침을 밧듯이 비채
○
다시 뜨시잔는 두눈에
피지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안시고
어른장에 누우신듯 손발은 식어갈뿐…
때느진 醫員이 말어시 돌아간뒤
이웃 늙은이손으로 눈빗 미명은 고요히
낫츨 덥혀다(『풀버렛소리 가득차잇섯다』)

아모悲嘆도 絶叫도 하물며 怨望도 反抗도업다。古代敍事詩와가튼 淡淡하고 簡潔한 筆觸에 感情의 波動이 沈痛하다 부질업시 感情을誇張하거나 떠드러대지안코 오로지 그리려는對象우에 모든生活感을 浮彫하라는 格이 높은藝術家의 솜씨를 우리는『제비가튼少女야』가운데서본다。

文學에잇서서 倫理와論理 (1)

金午星

倫理와 論理는 外觀上으로는 한개의 안티노미ー의 關係를갓고 잇는듯하다。倫理가 人間的 眞理 또는 人間行爲의 規範이라면 論理는 自然的眞理, 客觀世界의 規範이다 할수 있나 人間的 眞理와 自然的 眞理와는 眞理의 어느점으로 兩極限性을 意味할때도 업지안함으로서이다。그러나 現代의 思惟는 이러한 兩極限의 眞理를 統辯的으로 把握하려는데 傾注되고잇다고 볼수잇다。人間的인것가운데서 客觀的인限界를 밝히며 客觀世界의 構造를 人間的事實에서 把握하려는것이 現代思惟의 새로운 傾向인것이다。實際에잇서 우리가文化形態의 外觀上의 差異에만着圖하지말고 그것들의 內面的構造를 反省해 본다면 外觀上의 差異보담은 좀더 重要한點에서 互相聯關性을 갓고잇슴을 알수잇슬것이니 倫理와 論理와의外觀上의 안티노미도 그內面的構造에서보면 相互 依存性때문에 解消되고마는것이다。論理는客觀世界의 論證을 目標로 한다。그러나 이所謂客觀的 論證이란 그實은 그時代의 生活(倫理)關係에 制約되여 잇는 것이다。웨ㅡ 그러냐하면 人間은 自己네의 生活(倫理)態度에 依해서만 客觀을 認識하게 되는까닭이다。꺽가튼 現實도 그들의 生活(倫理)態度에 따라서 相異한 論證을 가저오게 되는것은各個의 論理가各個의 倫理의 基礎우에 서잇는까닭인것이다。客觀的眞理의 內面에는 언제나 人間的 眞理가貫流되고 잇는것이다。이러한事實은 倫理의側面에도잇는것이다。倫理는 人間行爲의 規定을 限目으로한다。그러나行爲의 規範은 從來의倫理學에서보면 항상論理가 비저내는것이다。行爲의 規範으로서의良心、善、正義等은 理性의論理가비저낸 倫理의 格率인것이다。非合理主義에 立脚한 파스칼・니ー체・게르케꼴・도스토엡스키等의 倫理觀도 形式的 格率을 맨드러내는 形式論理를 拒否하엿슬뿐, 그非合理性을 論證하는 그들獨特의 論理를 갓고 잇는것이다。그것은 아무리 否定한 倫理的 規範도 論理的 證明이 업시는 存立할수 업는까닭이다。여기서 우리는 論理가 倫理의 基礎우에 잇스며 倫理가 論理의 證明에依存함을 알수잇슬것이다。이러한 基本關係는 倫理와 論理가 文學에서問題될때에도 變함이업슬것이다。

그러면 이지음 倫理問題가 文學의 側面에서 論議됨을 보면 倫理는 論理와는 相容될수 업는것으로 論理를 拒否하거나 超越하는 倫理만이 文學의 全體인것처럼 생각되여지는것이다。이제 이러한 主張은 우리文壇이 過去 푸로文學時代에 잇서 論理(創作方法)의 過剩으로 因하야 呻吟하든 以後의 現象으로보면 그反撥의 現象으로 보아 잇슬法한일이다。그러나 論理의 過剩이 文學의 凋渴을나흔것과가티 또한 倫理의 氾濫이 文學의 統一性을 破壞하지나 안을까하는 憂慮가 업지아니다。眞理는 中庸에 잇다고 말할사람들은 낡은생각이리라고 嘲笑할는지 몰은다。그러나 그中庸이 折衷的限界에서는 아무런眞理도 되지못할것임은 勿論이지만 그것이 한개의 止揚과 克服을 通해된 統一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中庸의길을 取할수박게업다。이제 文學에서 倫理와 論理가 問題된다면 그것은 어떤 倫理 그대로나 또는 어떤 論理 그대로가 文學에 折衷的으로 利用될것을 意味하는것이아니고 文學이 要求하는 意味에서 止揚을通해 엇어지는 文學的인 倫理와 文學的인 論理가 아니면 안될것이다。그러면 今日의 文學이 要求하는 倫理的인것과 論理的인것은 어떠한것을 意味함인가?

戰爭文學 (六)

武臣亂과詩

湖岩

高麗때는 文武兩班의差別이잇서 이것이中葉以後에 이르러는 文貴武賤의思想으로 變하게되엿다 毅宗의 詩人愛護와 仁宗의學者禮遇는 文臣의驕奢를 誘導하야 異日,浮華輕佻의風을 釀成하엿스며 毅宗의失政과 文臣의失行은 武臣亂의 直接原因이엇다。

毅宗이 游幸을 즐겨하야 名勝寺院에 나가 近侍學士들과 觴詠할새 文臣은 醉飽함에 反하야 扈從將士들은 飢困하므로 武臣의不平이 업슬수 업섯다。그리고 文臣이 너무나 武臣을 蔑視하야 詩宴遊戱에 잇서서도 툭하면 侮辱을 加하므로 畢竟 武臣의 激憤이 突發하야 武臣亂을 일우웟다。

武臣亂의 發端은 毅宗二十四年(庚寅)八月普賢院에서된 것으로將軍 鄭仲夫 李高 李義方等이 文臣韓賴、林宗植을 虐殺한데서 시작한것이다。

狂暴한 武臣들은 무릇文冠을쓴者이면 누구나 莫論하고 개모주리 屠戮할새『殺人如麻、積尸如山』이라고 史家가 形容한 慘象을 演出하엿다。

武臣들은 이에毅宗을 廢하야 巨濟에 放逐하고 明宗을 擁立하니 이것을 庚寅亂이라 稱한다。當時 이亂을 目睹한 東閣金莘尹은 庚寅重九란 題下에 그무시무시한 慘象을 을펏스되

離下干戈起。殺人如亂麻。良辰不可負。白酒泛黃花。

以上絶句는 武臣亂을 그린貴重한 史詩로서 今日까지 傳해오는것은 幸이라하겟다。

武臣亂은 庚寅뿐이 아니라 三年後 癸巳에가서 再爆發이 되엇는데 이에이르게된 經路로 말하면 東北面兵馬使 金甫當等이 兵을 일우켜鄭李亂黨을 擊討하다가 도리어 兵敗하야 鞠殺될때 文臣들과 共謀햇노라하므로 前日에 免禍했던 文臣들이 이에 이르러 子遺도 업시 아주 武臣의손에 屠殺되고 말엇다。이때 毅宗의被弑는 千古慘變으로 高麗史上初有의 일이며 이것을 癸巳亂이라한다。金雲養의詩에 金甫當起兵을 을퍼갈우되

甫當有膽氣。擧義事不成。胡乃臨死語。文冠禍重嬰。

雲養은 또다시毅宗의被弑한慘狀을 을펏지만 여기서는省略한다。

庚癸以後 高麗天下는 武臣의 掌中에 드러가 三京 四都護 八牧으로 郡縣館驛까지 武人을 專用하엿고 가장 可笑한것은 國史 編修에도 武人總裁가 잇섯던것이다。

★ ★ ★ ★

瓜哇見聞記

土人들의家屋과衣服等 ❶

李永春

日中에는 外衣까지 젓도록더웟스나 저녁에는 大端히 서늘하야 甚히 爽快하엿습니다 南洋의저녁은 住民의큰 慰安이 되는것입니다. 日中에는 八九十度程度로 年中큰變動이업고 저녁에는 七十度程度로 下降하고 새벽에는 或時六十度程度로도 下降합니다. 案內者의 指示대로 몬저市街地의 重要部를 自動車로 一巡하고 다음에 繁華한土民街를 散步하기로 하엿습니다 市內의 큰商店은 거이閉門하고(午後六時면閉門) 店名의 各色『일류미네ー숀』만이 光彩를 내고 잇스며 小商店에서는 中流以下의 普通土民의顧客을 늣게까지 吸收하고잇스며 夜市는 中國人街에서特히 繁華한데 京城鍾路에서 보는것과 大差가업고 다만그大部分이 土民飮食이엿습니다。市街地에서 몬저 눈에뜨우는것은 建築의 거의全部가 單層或은 二層이요 三層屋이잇스되 極히稀貴한것입니다 따라서 한個의 建築이라도 地所를넓게 잡어서 市街地全體가 다른나라 近代都市보다도 其人口에 比하야 地域이廣潤하며 또樹木이만어서 市街地全體가 한公園과갓습니다, 鋪路길가치 넓어서 市街에드러서면 모든것이 너무한듯이 보입니다 建築物의壁은全部 卵黃, 又는白色의 石灰塗壁임으로 至極히 明快한氣分을 주며 排水路의整備 道路의 平坦하고 規模잇는것 地下電線으로 街上이複雜히 보이지안는것 電車 自動車 馬車等의 交通機關의完備等 朝鮮서想像하는 爪哇의都市와는 全然달릅니다 交通機關中 가장發達한것은 自動車요 다음은馬車입니다 自動車에는 高級車外에 廉價로『써ー비스』하는 箱型三輪車가 가장만히利用되고 馬車는 四五人乘으로 매우가볍게보이는 雜치며다라나는 車로 土民이만히 타는것인데 四五人이 約三十分타고 三十仙(約六十錢)가량의 車賃를 주면 되는합니다 自動車는 朝鮮서 一年에 車에따라數百圓의 稅金이 잇스되 이곳서는 四五年前부터 稅金은 全廢되고 그代身揮發油稅가 若干올랏다합니다 따라서自動車가 만어지고 自動車事故가 頻繁함으로 그取締規則도 大端히 嚴하여젓습니다 從來白人이 事故로 土人을 轢殺하면 二三十磅의罰金으로 圓滿解決이되든것이 近者에는 數個月의體刑을 賦하게되엿다합니다 通貨는 이곳一磅(길다ー)가 日本金約二圓一仙(센트)이約二錢으로 十仙이 一磅가됩니다 通用價値는 磅와 圓이大槪갓습니다 即朝鮮서 一圓하는 物品이면 이곳서는 一磅입으로 物價는 朝鮮보다 約倍나 高價한세움입니다 三四年前까지도 圓과磅은 同一價値엿스므로 旅行者에게 甚히 便利하고 經濟的이든것이 至今으로 年前의 倍의 費用이듭니다 이곳서 그림葉書一枚를朝鮮에 부치면 葉書가十仙 郵稅가 十仙 合二十仙 約三圓을 주어야하며『러낭』한갑이 汽車간에서는 五仙 普通商店에서는 二仙半임으로十錢 或은五錢이됩니다 또 이곳서는 僞造貨幣가 흔하여 物件을사도 돈을一一히 机上에 떠려처 그소리를듯는것이 普通이고 別로서로 失禮라고 生覺치 안코 例事로아는것입니다.

雜筆

病院뒤人들 ③

朴榮濬

重病患者라는이는 盲腸炎이甚하야 入院하는即時 腹部手術을햇스되 希望이 업다는것이다。

病室은 陰鬱하기 짝이업섯다 그애의어머니도 寡婦인지 다만 혼자서 울듯울듯한 얼골로 서두르기만하며 病者의엽을 떠나지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우슴수도업섯다 後園에나와도 그애의 죽어나가는꼴 어떠케보나하고不吉한凶兆나본듯이 서로 말을못햇다。

남의일갓지안어 病에對한 恐怖를 새삼스럽게 늣기엿음인지도 모른다。참말을한다면 病이란것이 어째서 생기는지도알수업다 自然陶汰의 한方法이라고 冷然히 말한이도잇으나 陶汰를 必要로 늣기지안을 方法은 왜업을가?

老衰하야 得病하는데는 말할사람이 업스되 조컨낫부건 제命도 못살게하는 그病이란 人間側으로보아 너무나 가증한물건갓다。

뒤뜰에서도 그어린애의울음소리가 들리는것갓흿스며 蒼白하고 힘업는얼골에 힌보가 덥히여가는光景이 보히는듯햇다。

그러나 늙난것을 機會로 바라소히려들락날락하는 醫師와看護婦들은 한들에해가떠구나 하는弄談을하며 웃어버린다。

自殺老婦의이야기는 이後園을 直接 두렵게햇다。

목맨든 나무가지는 곳 잘려버리엿기때문에 보히지안호나줄거리나무는 그냥 남어잇기때문에 그나무를 몰때마다 힘웃입고 혀를빼 늙은사람이 느려저 잇는것갓더다。

죽엄이야 다가트련만 늙은이의 自殺이란 더욱悲慘한것인지ー。

종기로 五寸가량의 手術을 두번이나 거듭햇것만 다시 그보다 더큰 手術을해야겟다는 醫師말에 너무오래동안 自己를看病해주는 子息를낫이업서 죽엇다고하나 그實은 入院費問題이엿스리라고생각햇다。

이런推想은 우리에게도 暗影을주엇다。病院後庭ーー이는 病院에서 떠나잇슬수업는後園이엿다。

그아름다움은 假裝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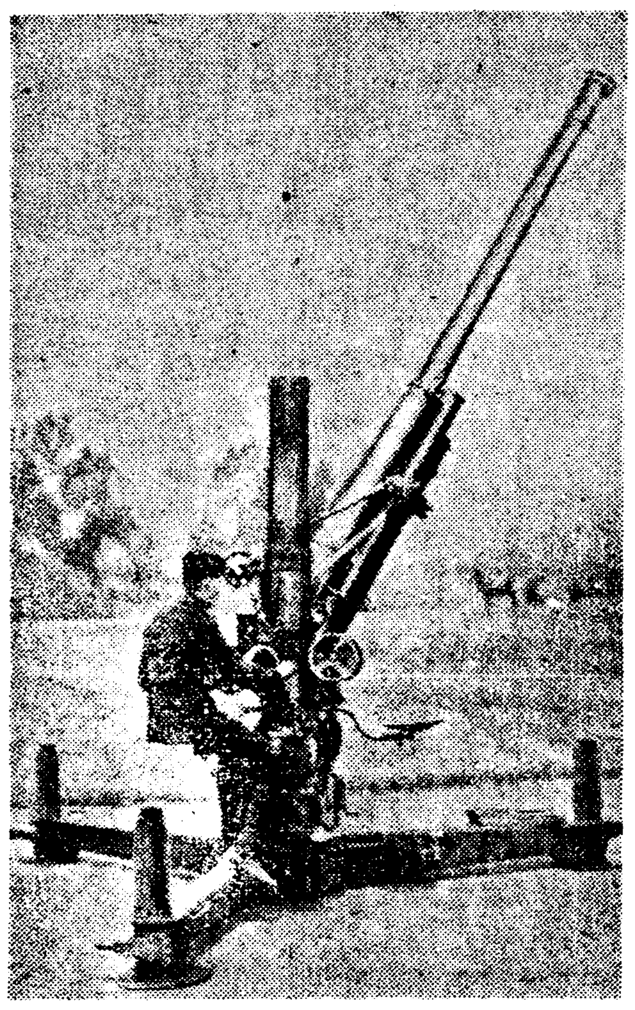
날이갈수록 이러한話題와聯想은 稀薄해지여 우리는 다시後園엘 다음노코 단니게되엿다。

盲腸炎患者는 意外에 好調로 나가 죽엄에서는 完全히 救出되엿기때문에 病室에는 웃음이 돌앗다 따라 그 患者의 어머니와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밧게되여 이야기의 數가 늘엇스며 나를通해 우리患者를보려오는동모도 각금잇서 後庭을 옛날의것으로 도로만들엇다。

科學

敵機의空襲과 高射砲 (下)

閔正勳



高射砲를 가지고 射擊할수잇는 最大高 即 最大射高는 七糎半級으로서 十二粁에 미치도록 努力中인데 十糎半級으로는 이미 十六粁에 이르는것도잇다 그發射하는 速度는 七糎半級으로는 每分 二十五發 乃至 三十發이나 十糎半級으로서는 每分 十五發 乃至二十發이나 實際로 彈藥을 裝塡하는 砲手의 힘이 내종에는 빠저서 機械로 裝塡하는 方法을 發明치 못하는以上 제대로의 發射速度를 다 내기는 困難하다 砲身의 仰角은 現在 一百十五度까지 줄수가잇고 方向은 全周 마음대로 돈다。彈藥은 時限信管을 가진 彈丸을 高射시키어 그 目標의 未來位置에까지 가서는 그信管이 自動的으로 炸裂되야 마치 그目標를 向하야 炸裂되는것가티보이게 되는것도 쓰고 또 目標에命中만 되면 그瞬間 炸裂되는 銳敏한 信管을 裝置한것도 쓴다 그런데 高射砲는 果然몇發의 發射彈으로서 能히 敵機를擊墜할수 잇것느냐고하면 四乃至 五粁距離에 잇서서 一機에 적어도 八十發을 要한다고 한다。勿論 거기는 그 高射砲의 好否와 그것을 놋는사람의 能否도 問題되야 一槪해서 말하기는 어렵것지만는 大體로는 그쯤으로 可能하다는것이다。지금一門의 高射砲가 三秒동안에 一發을 發射한다고假定하고 十五秒間에 一機를 擊墜하는데는 멧門이나 所要되는가를 알아본다면 $80 \div (15 \div 3) = 16$ 의 式과가치 十六門을 가지고 一機에 集中射彈을 行치 안해서는 안된다。그러나 現今과 가티 飛行機의 速度가 急激히 스피드업되야 每時 三百 乃至 四百粁에 이르는것이 잇는狀態에서는 高射砲의 威力이 미칠만한 制空의 範圍 即 威力圈도 멧倍나 短促한 時間을 要求케 되고잇다。그러므로 高射砲에도장차 아프로는 一段의 進步를 加하지 안해서는 안될것이다。그러면 그 一段의 進步란 大體어떠한 方面을 가르치는 것일까? 첫재 彈丸이 砲口에서 떠나서 目標에까지 이르는 그동안의 時間을 칠쩍 短促시키지 안해서는 안된다。둘째 彈丸의 命中精度도 改善되야 거의 百發百中으로 正確치 안해서는 안된다。그러니까 셋재는 照準具 觀測具 算定具等의 精度를 더좀 向上시키어야 한다。그와同時에 넷재는 照準不能의 死界때문에 高射砲의 威力圈을 縮少시키지말도록 해야 한다。照準不能의 死界란 어떠한 말인가? 卽 直接照準의 角速度의 制限으로서 어듸나 照準이 可能한것은 아니요 直接照準이 不可能한 一定한 死界가 생기는것을 면치못한다。勿論 目標가 그러한 死界에 들어왓슬때는 어떠케하느냐하면 다시 거기서 나오자 마자 곳 그 機會를 捕捉하기에 敏速한 行動을 할수잇도록 되어야 할것이 事實이다。何如튼 現下의 飛行機는 그最大의 速度 또는 進步된 諸性能을 巧妙하게 運用하고 秘策을 다해서 空襲을 하게될것이 아니겟는가? 그런데 거의對應할 防空의 積極的兵器인高射砲의 性能도 그程度로 一層向上을 보지안코서야 어찌 그百퍼센트의 效果를 期待할수 잇는가? 高射砲는 高射機關銃과도 달러서 그運搬에도 輕便치 못함을 免치 못하나 半固定砲座式以外 自動車에 積載하도록맨들어 노은것도 잇고 또自動車로 牽引하도록 맨들어 논것도잇다그래서 下記 두가지種類는언제나所要되는 方向을 向하야 運搬해가지고 다니기도 어렵지 안케된다。

(사진은 高射砲)

新刊紹介

▲物の經濟 太田正孝著 (內容) 第一章 總說 第二章 鐵鋼 第三章 非鐵物品 第四章 纖維藥原料 第五章 化學工業製品 第六章 食料品 第七章 ゴム皮革 第八章 動力及燃料 第九章 完成品 第十章 金 第十一章 結語等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 中央公論社 振替東京三四番 定價一圓三十錢

▲ピタカ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本鄕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 振替東京五一六八四番 定價三十錢

머리의疲勞를恢復식히는

ノーシン (노ー신)

模範的頭腦藥

産業動員이다 戰時體制이다 不眠不休이다

머리가疲勞되엿다고, 頭痛이난다고, 쉴수는 업는非常時입니다!

머리의補强은 노ー신에맛기고 피땀이나도록大活動하십시요。

이때가 노ー신을쓸時季입니다

노ー신의優秀한點은

다만 痛症을 빨리中止식힐뿐만아니라 同時에 頭腦의疲勞를 恢復식혀 朦朧한頭腦를明晣히하는 獨特한藥効를 함께 가지고잇다는것입니다

더욱이常用하면神經의營養을 조케하야、心臟을强補하는숨은効果가잇스므로、每日頭腦를酷使하는現代人의必需藥으로서 好評을밧고잇슴니다

主効 頭腦疲勞・頭腦朦朧 心氣倦怠・精神憂鬱 頭痛・頭重 眩暈・船車醉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大地』
『시도니、프랑그린』監督『메트로』映畵

趣味娛樂

主役難

主役업시못날르는 "바람과갓치날러갓다" 그러나榮冠은『게-불』에게

『마-가렛트、밋첼』女史의巨作인『바람가티 날러갓다』는이題名때문에 지금『허-리웃드』를 旋風中으로 끄러너코 말엇다。彼女의 일흠은 적어도 去年六月까지는 누구나 알지못하든 이름이엿다。그러나 七年間이나 努力한 彼女의 精進은今年에 드러와서『프릇사아』賞을 獲得하면서 報償되엿다。그래서 米國서 六月에 英國서 九月되여 英米 通해 一〇〇〇〇〇部以上이라는 天文學的數字로 賣盡되것은 아마 世界大戰以後에 最初의 記錄일것이다。

이러케 華麗한 話題를『허-리웃드』에서 버릴理致는 萬無하다。하물며 그作品의 內容이 映畵的으로보아 百퍼-센트의効果를 나타내일것임에는 더말할나위도업다

『허-리웃드』가 原作權에걸린것은 벌서 今年의『베스토·세라-』中에『모옴』의『劇場』이란것을 除하고는 全部 映畵化된것을 보드래도 알일인것이다。

그래서『쥬-·월포-르』의『子息을爲한新禱』는『와-너-』가『케이·프란시스』로 映畵化하고『젬스·힐톤』의『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사뮤엘·꼴드윈』이 그權利를 買收한形便이다。

그러나『셀즈닉크』는 날탈니『바람과가치 날러갓다』의 映畵化를 하기로해서 지금이야말로『허-웃드』에서 명색이俳優라는 일흠을 듯는사람의 神經을 尖銳하게하고잇다。다시말하면 一時에는『스타-』들의 話題를 豐盛하게하든것이 인제는 누구나 남의일가티 알지못하게 되엿다。

이 映畵는『죠-지·큐-커』의 監督과『시도니·하워-드』의 脚色이라고하는 絶好의 멤버-로서 다른것은 다 準備가 되엿스나『萬事俱備、只欠東風』格으로 제일重要한 主役俳優의 詮衡難에 빠진때문이라고한다。

그래서 이映畵의 主役으로손꼽힌사람은『노-마·쇄-러-』『미리암·포프킨스』『타르라·방크헷드』『카로-루·롬버-드』『죤·크로포-드』『아이린·단』等과『글레크·게-불』『프레스톤·포스타-』『로날드·골만』等이『셀지닉크』會議室에서 이리왓다 저리갓다하면서 아직도決定이되지안코잇다。

그러나이作品의 主人公은『스카렛트·오하라』와『렛트·바틀러-』두사람으로서 셀즈닉크는 클라크게-블을『바틀러-』의 適役이라고해서 交涉을하는데 아모런이役은 게-블에게 떠러지는모양이다。『스라렛트』는『노-마쇄러-』가 一時『살버-그』의死後에 交涉되여서 거의 實現될무렵에 엇전일인지 다시『호프킨스、방크헷드』가 問題의中心이 되엿다고한다。

京城愛劇會 地方巡廻

市內蓬萊町四丁目三三一에잇는 京城愛劇會에서는 一般民衆에게 時局認識을 徹底하게하는 한방法으로 獻金美談이라든지 防空美談가튼데서 取材한 脚本을가지고 男女俳優二十餘人이 오는 十八日 仁川에서 公演을하고十月初에는 京城公演을한뒤에 다시 南朝鮮方面으로 巡廻하기로 되엿다고한다

多事한가을의聖林

❶파워-의孝誠 ❷偶然한四人近逝 ❸유社改革ETC

라이론·파워-라고하면 지금은 二十世紀폭스의『호-프』라고할만큼 人氣잇는 花形으로 치는데집에잇서서는『마마』에孝誠잇는 善良한 靑年으로서前途有望한젊은이이다

이스냅은母親의압에서愛犬과 놀면서 老母에게慰安을주는孝養光景인데그母堂 파워-婦人도 일직이는人氣잇는女優로서『스레-지』와『라디오』로大活躍을하드니이고그父親인『라이론·파워-』도『사일렌트』의녯시절에는『꺈音』이라는名譜에도主演을해서 그名演技가 一世의 讚歌를 받든이다。

그러고보니 第二世파워-야말로 쩟쩟의 名門甲族이라고 아니할수업다。

×

『알프렛드·란』과『린·폰탄』이로스안젤스市에서『로버-트·쇄웃드』의『아이듸옷스·데라이트』의『폿라이트』觀을때偶然히 邂逅한것이 이 네사람이다。

左로부터『도로레스·델·리오』의夫君인 MGM의『아-트·듸렉터-』『세드릭크·기본스』『말레-네·딋트리히』『다그라스·페아방스·쥬니어』『도로레스·델·리오』인데 劇場은『빌트모어·데아터-』이엿다。

×

風雲이 急迫하는 유나이텟트·아-티스트』라고하면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유社는 最近大改革을 斷行해서 이때까지同社의 重役으로잇든『좌-리·최프링』『다그라스·페아방스』『메리-·픽포-드』『사뮤엘·꼴드윈』『알렉산더-·코르다』의 五人中에서 近者數年來는 實務로부터 멀니 떠러저잇든 좌프링、다그라스、픽포-드의 三人이 今番 꼴드원과 코르다二巨頭에게 그所有株를賣却하고 引退할것이다 그래서 今後 유나이테트實權은 全혀 꼴드원과 코르다 두사람이 掌握하기로되엿다。이 買收價가 놀나지마라 六〇〇萬弗 이스냅은이歷史的會議을 마치고 歸英하는 알렉산더-·코르다를 로스안젤스驛까지 餞送나온巨頭들、左로부터 다그라스、코르다、픽포-드、좌프린、로-즈、꼴드윈等이다。

(寫眞은 記事順대로)

名監督의포-즈 ❶

에룬스트·루빗취의 貴婦人帽鑑識眼

數年來로 沈默을 직히든『에룬스트·루빗취』監督이 다시『파라마운드』에서 가메카폰을 들고이러섯다。

『콤비』는『마리네·뎃트리히』이제 이 名女優와 名俳優間의 撮影小話를 하나 紹介하기로하자。

『그런 帽子는 못쓰는것이오、그게 어듸 貴婦人의 帽子요』

『루빗취』가 大聲一喝。

『아니 나는貴婦人이얘요、적어도 나는 그러케되지기를바래는것입니다。왜 이帽子가 뭐이 맛지안는다고 그러세요』

『아니 못쓰오』

이러케되여『天使』의 撮影中에 名監督과 名女優는 한개의 帽子事件으로 뜻하지아니한 對立을 하게되엿다。그래서 허는수업시 이映畵에 使用하기위해서 特히 米國內에서는 第一流가는 帽子店을 끌라서 見本으로 가저오라고한 十數個의 貴婦人帽子가 現場에 차히게되엿다。이것 저것 골라보앗스나 뎃드리히나 루빗취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것을 찻지못해서 暗中模索(?)하는판에 衣裳部의 女子가 다른『셋트』에 물일을 보러가느라고 맛침 그엽을 지나게되엿다。바로 그때 루빗취의 눈은 그女子의 손에 쥐인 帽子를 쏠드시 여겨보더니

『올치 여기잇군』

하면서 그帽子를 빼서 들고는 하번得意의우슴을 우섯다。

『이봐요 우리撮影所에는 언제든지 이러케 帽子를 꼭 準備해두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帽子가『뎃드리히』自身의 帽子이엿더니 이 對立이 解消된 大團圓은 말하지안허도알일。寫眞은옥보건대 아마 이 名監督과 名女優의 帽子事件이 解決되든의 한刹那인듯하다。이러케 和睦한것을보면……。●

(사진은 루빗취와뎃드리히)

라디오

十六日 (木曜)

◇午後六時兒童劇『동모의마음』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同六時(仙) 童話 蚯蚓一生 (第一放送) 小川文代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永生의世界 遠信一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同七時四五分 講演 東西文明의長短 李晶燮
◇同八時一五分 軍歌工夫『凱旋』納所辨次郎作曲 鈴美合唱團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 指導 李錦奉 中에서 上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 三絃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 讀書『秋風感別曲』 白牧丹
◇同九時一〇分 一、十杖歌 二、평양가 三、휘모리 張一朶紅 全光泰

第一放送
◇同六時 (仙) 童話
◇同六時二五分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農山漁村
◇同八時 (東) 浪花節
◇同八時三五分 (東) 俳諧
◇同八時五〇 (東) 演劇

十七日 (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토란면』
◇午後零時五分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歌謠一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二) 毛絲編物(四、五歲男兒오)
◇同六時 (淸) 이야기와唱歌 金順喜 全國中繼一 一、이야기 淸津으로부터 二、唱歌 가、齊唱 我が駒 田中銀之助作曲 나、同 お洗濯 洪蘭坡作曲 다、獨唱 砂山 山田耕作曲 라、齊唱 花嫁狐 佐佐木すぐる作曲 淸津第一公立普通學校兒童 盧周善(男) 徐良淑(女) 金容哲(女) 獨唱 피아노伴奏同校訓導 玉城達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天體』 韓埰表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同七時四五分 軍歌工夫『凱旋』 納所辨次郎作曲 鈴美合唱團
◇同八時 (大) 室內樂 大阪放送四重奏團 第一뻐이올린 콘라-드·리-브레히트 第二同 爲田猛 뻐올라 西田秀雄 첼로 吉田貨諦 四重奏曲 十八番 第五 베-토-벤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同…매누엣트 第三同…아다지오 第四同…알레그로
◇同八時三〇分 (平) 西道歌謠 朴永淳
◇同九時 時事解說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管絃樂
◇同六時 (城) 唱歌
◇同六時二五分 (城) 修養講座
◇同七時三〇分 (大) 社會面
◇同七時五五分 (大) 室內樂
◇同八時三〇分 (大) 講談
◇同九時 (東) 時事解說
◇同一〇時四五分 (東) 支那語뉴-쓰

十八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瀟湘八景 나、赤壁새타령 杖鼓 池龍九 崔鳳翼
◇同一時一五分 家庭講座(三)『毛絲編物』(八九歲女兒스웨-타) 金順喜
◇同六時 少年映畵이야기『두사람의마음』 成東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科學과想像』 遠藤俊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滿洲事變의밤
◇同七時四五分 講演 朴榮喆
◇同八時一五分 唱劇 磨石縣城의殊勳
◇同八時二五分 (大) 吹奏樂 唱 李蓁香 詞 任斗哲 杖鼓 韓成俊
一、南北戰爭을描寫한現代의二名曲 二、勝利의오라-스 오네쓰가作曲 大阪吹奏樂
◇同八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 磐石縣城의三勇士金景 指揮 菅原明朗
【配役】相澤中尉…姜南鎭 李正洛…金虎山 高元成…方熙林 朴京學…朴相穆 李成實…胡月 高의妻…申카나리야 이옷子…朴貞玉 解說…朴舞鳴
作及指揮 任曙防 效果 都無之 創作座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詩吟
◇同六時 (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及實況 (自奉天)
◇同八時 (東)謠曲
◇同八時二五分 (大)吹奏樂
◇同八時五五分 (大)物語

國際的으로効果優秀함이 承認되여잇는

男性ホルモン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에나루몬은英國倫敦國立醫學研究所國際會議主任바-크스博士에依하야『各種男性호르몬製劑의効力比較試驗의結果顯著히强力하다』고報告된純正男性호르몬製劑로서血色素數、赤血球를增加식혀新陳代謝를旺盛히한다

(初)(老)(期) 에잇서서의 疲勞倦怠感、睡眠障害、頭痛、眩暈、腰痛、肢端知覺異常、記憶力減退、精力減退、眼精疲勞等에서서…

一般症狀을佳良히하야新陳代謝를旺盛히하고精神的肉體的活動을活潑케한다

本劑는또靑壯年期에잇서서男性的特徵을發揮식힐수업는諸種官能性障害에賞用된다

【用量】錠劑は一日三回一錠服用す。注射は每日又は隔日一―二管皮下又は筋肉內注射す。

【價格】錠劑 二〇錠([illegible]) 五〇錠([illegible]) 一〇〇錠(一六圓) 注射液 〇·五cc 五管 [illegible] 一〇管 [illegible]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武田發賣品 A37—8

마마푸라스타-

발는그때에 고통을곳잇고 시원한약기운은 더위조차 몰으게하여줍니다

마마푸라스타는藥効을오래保持하며 本劑特有의効力이 皮膚를통하여 皮下筋肉과血管에滲透되어 細胞組織을更新히여주고 氣血의循環을旺盛케하야 疼痛을개이게하는 鎭痛消炎貼布藥입니다

皮膚에잘붓는고로 二十四時間동안持續的으로 藥効를發揮하며 藥効가揮散하지안코 皮膚의氣孔으로부터 持續的으로滲透되야 心身을爽快케하여주고 발는대로入浴할수잇스며 藥質이 柔軟伸縮性이기때문에 身體의어느곳에붓치든지動作이自由롭습니다

신경통·여개가거북하고압흔데·류-마지스·運動으로因한筋肉及關節痛·勞働으로因한筋肉及關節痛·打撲·捻挫·胸痛손과발목이압흔데·등과허리압흔데·乳腺炎·齒痛·구두에벗겨진데·痴氣·종기벌비한데물닌데등에발느시면 百發百中의神効가잇습니다

藥劑의表面에붓처잇는 열분「가-제」를떼어 그대로나 或은 적당히 짤나서 압흔곳에붓처주십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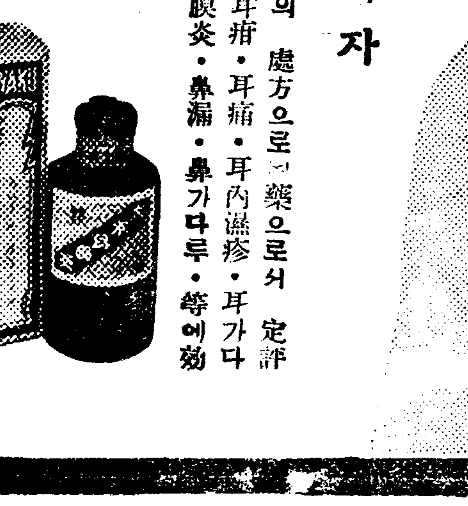
宅近處藥店이나 或은直接本舖로申込하시면 見本을無代로進呈함

八枚入 二十錢
十三枚入 三十錢
二十二枚入 五十錢
四十八枚入 一圓

위험한귀병과 코병을곳치자

本劑는 獨逸포리추엘博士의 處方으로된藥으로서 定評이놉흐며 耳漏·耳道炎·耳痛·耳痛·耳內濕疹·耳가다루·耵垢耵聹·急性慢性鼓膜炎·鼻漏·鼻가다루·等에效力이잇습니다

十錢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大木耳鼻藥 (대목이비약)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鍛冶町 大阪淡路町

中部版

原始的인家內工業 年産一千二百萬圓
紡織、化學、食料等의順序로 飛躍的으로發達하는江原道

【春川】산간벽지강원도는 근자에일으러 지하재원의 발굴등으로 인하야 쏠주되는 기업가들의 자본투자로 점점현대적공업의 발전을보게 되엿스나 아직까지도 전통적 가내공업(家內工業)이 상당히발달되여 김화(金化) 회양(淮陽)삼척(三陟)평창(平昌) 강릉(江陵)등지의 직물(織物)이라든지 철원(鐵原)화천(華川) 홍천(洪川) 춘천(春川)등지의 제사(製絲)라든지 그외 요업(窯業) 어유비(魚油肥) 목기(木器)등 제작이라든지 다른지방이 감히 딸으지못할바 적지안흐며 가내공산액(家內工産額)이실로년 일천이백사십일만오백구원이라는 방대한수짜를보이고잇는데이제 각종별로보면 다음과갓다

	(單位圓)
紡織工業	一、三三〇、一〇九
金屬工業	一六六、三五八
機械器具工業	四三六、一八六
窯業	三五〇、〇一一
化學工業	三〇五、〇五九
木器工業(木製品)	二六八、〇七六
食料品工業	三五三、一五三
其他	一、四六八、五五三
計	一二、四一〇、五〇九

通川商工協會總會

【通川】통천상공협회에서는 지난십사일오후칠시부터 통천면사무소에서 임시총회를개최한바 중요한토의사항은 벌서부터교섭중에잇던 석유일수판매(石油一手販賣)의교섭이 원만이되여 이로부터계약과 판로에대하야 타협하고 동일한시에 폐회하엿다고한다

慰問袋多數募集

【楊州】양주군내 각보통학교소학교에서 아동들로부터모인 위문주머니(慰問袋)가백사십개와군내유지로부터모인삼십개는군에 접부모엿 곳군사령에보내거처 지나로 보내게되엿다는데 더욱 눈에띄우는것은 향토미(鄕土味)가득한 밤과잣이며 기타향군에게 깃버할일용품에 일일히 귀여운아기들의 편지가 드러잇다한다

尹泰寬 車義南 李敏… 一圓五十錢金泰淳 金炳泰 禹基正 十三圓 … 尹泰曾 宋氏萱 三圓李敏銖 … 李會九外二十八人 十六圓金春植外七六名 十圓 … 七圓五十錢 … 孫鍾選 李康圭 具容祖 四圓 柳守應 黃世煥 三圓李熹相 兪相說 李敏圭 二圓五十錢崔東鉉 二圓孫千用 禹萬江 … 泰憲 黃煥 一圓五十錢孫日用 十圓李十之外九人 五圓式伊深 面睦明鎬 … 一大 睦顯俊 金成龍 李任和 張德辰 韓昌鎬 韓興洙 李臨 朴壽千 李錫來 邊鳳吉 盧聖龍 李敏善 朴元瑞 崔 柳順熙 鄭福永 李光永 高福 金千鎬 十一圓五錢長興面 李益宇外七三人 十圓八十錢洪吉厚外七一人 十八圓七十五錢 李秉宇外一二四人 七圓五十錢 金鍾主外四九人

二十三圓七十錢金鎭永外一五七人 十六圓五十錢 韓圭容外一〇九人 十一圓七十錢朴 …外七七人 十圓白石面 … 七圓 元鎭英 六圓 … 李 … 五圓 … 金 … 朴 … 四圓 … 三 … 二圓 韓中烈 … 百二十圓 和道面 … 芝…內 …

宗 權達 姜孝鳳 八十六圓五十錢 韓鼎錫外四十名 廿五圓 魚命禧外卅一人 七圓 姜永錫 六圓五十五錢 權寧錫外卅六名 四圓八十錢 盧漢龍 三圓 任元宰外廿七名 百卅二圓五十錢邊鳳仁外四名 十圓 金麟鐵 二圓 李載佑 安元培外五名 鄭演澤 柳世熙 金錫同 禹炳熙 金東旭 金先景 朴禧秉 林壽東 一圓 式尹義榮 俞東寅 徐承桂 趙 西雲 崔順根 張基宅 李相薰 南辰熙 睦鼎相 財前貴治郎 金基成

軍事後援聯盟會 七十一圓 蘆海面內振興會 二圓五十錢李昌條 尹福天 十五圓韓七俊外十四人 三圓南宮鎔外五人 五十圓 別內面金演友 十五圓 李敬鎔 李根周 十圓入江常造 李英九 五圓 九里面 金永淳 崔昌植 咸甲睿 佐野中造 金顯旺 金亨培 田明順 金宗煥 成本德之助 南部重利松本萬市 李相應 崔謙植 洪元甲 申鳳均 崔文學 金明俊安錫鎬 李利天 米津恒五郞 柳達熙 崔寬植 十圓崔命福 三圓林凡鐵 林元相 一圓 金萬春 秋完奉 五圓廣積關 白南郁 李聖澤 金昌洙 四圓金奎鉉 李元鏞 韓元敎 三圓李東南 朴谷起 姜仲鳳 金世澤 金老洙 朴永信 二圓李東恒 金善根 李運承 洪在亨 李根永 白樂善 洪喜善

胡鹽念慮는업다 青島로부터大量入港

【仁川】조선서소비하는 지나염(支那鹽)은 년一일의근식은 인천에서 륙량(陸揚)하엿스나 금번 시국관계에도 별영향업시 호렴을 만재한 찡ー크선오십수척이 십사일청도로부터 인천에입항되엿다한다

그어미는어찌하야 그아들을죽엿나 伊川殺兒事件眞相判明

【伊川】기보한바 이천군판교면군지리(伊川郡板橋面君至里)심상진(沈相鎭)의안해 김성녀(金姓女)가 사랑하는 어린아들을 죽엿다하야 이천서에서 방금엄중 취조를받고잇다는것은 기보와갓거니와 방년이십세의 묘령으로 사랑하는아들을 죽이지안흐면 아니되게된 리면에는 눈물어린 들을수업는가엽슨 곡절이잇슴을알엇다

그러면 김성녀는 웨그아들을죽엿든가? 그리유를 드른바에의하면 열일곱살때 산내면송정리 김경식이와 결혼하야 삼년간 동거하든중 행인지불행인지 어린아해를 임신케되바 김경식이는 태중에잇는 아해가 자기의 아해가 아니라는데에서 문제는 발단이되야 부득히 서로 갈러지게되여 김성녀는 작년음력삼월에 심상진에게로 시집을 갓는데 시집온지 보름만에 아들을 분만하엿스나 시부모와 남편을대할낫이 업섯다한다 그러나 다행이 지금남편심상진이가 형무이업슴으로 그어린아들을 심상진의 호적에 입적까지하엿스나 양심에 거리끼는 자기남편의 아해가아니므로 어린아해가 울더지 웃더지 시부모와 남편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어린아해의 옷이 더러워저도 옷한벌 하야달나고 할염치가업서 정신상으로 무한한고통을 밧고잇던중 시부모는 각금 그자식이자라면 물론 자기아비를 차저갈것을 공연한 수고만한다고 하는말이 좁은녀자의 가상에 못울박게되야 남모를 한숨과 눈물로 지내다가 지난음력 칠월보름날 친정에갓다가 금월일 도라오는길에 그아해를 엇새인다면 자기의 정신상 고통도 업서지겟고 남편과 시부모에게도 미안을 덜가하야 죽엿다는 눈물겨운 진술에는취조경관도 동정의 눈물이잇섯다는데 암만 김성녀는 사정은자정이나 법으로서는 살인죄라는 무서운범죄를 한것이니만치그범죄행위에대한 법적책임은 도저히면할수업는것이라한다

京畿號軍用機의獻納期成金遝至 永登浦方面의有志도奮發 十五日에만千七百圓

【永登浦】지난구일 경기도청(京畿道廳)회의실에서 감자지사(甘蔗知事)이하 이백구십여명의 도내각부군유력자들이 회합하야이십이만오천원의 예산으로 륙군전투기두대와 해군전투기두대도합네대의 순도민의 적성으로된 경기도호(京畿號)를 건조헌납하기로 결의한이래 시내각요행단 회사단과 영등포공업단측을 비롯하야 도내각종각계급에서적성의헌납금이 답지하야 도청계원으로하여금 그정리에 분주케하는중 한강이남로량진(鷺梁津)영등포(永登浦)등각방면유지들도 각각솔선하야 자발적으로 거출하는터인데 십오일하로동안에거출된것만 일천칠백원으로 그내역은 아래와갓다하며 압흐로도 속속연출자가 잇슬모양이라고한다

▲五百圓式池田長次郞 木下榮 ▲二百圓式中川幸一 小田智敏 申敏植 ▲百圓齊藤辛吉

煙草益金一割獻金

【楊州】의정부연초판매소(議政府煙草販賣所)관내 소매인이백삼십륙명은 팔월분매상고의 리익의일할인 일백삼십삼원팔십전을 국방헌금으로 군부에전달하얏다한다

協同油脂의工場修補地 三陟이斷然有望
電力、燃料、地價等條件有利 他地方의爭奪戰猛烈

【春川】동해안(東海岸)수산업(水産業)의 중심세력인 오유(鰮油)의 가격을유지할방법으로 일산(日産)에 반기를들고 수산조합(水産組合)어업조합(漁業組合)을 중심으로 출현한협동유지회사(協同油脂會社)의 경화유공장(硬化油工場)의 유치문제에 대하야 청진(淸津) 부산(釜山) 원산(元山)삼척(三陟)등 각후보지(候補地)지방에서는 적지안은 활동을 계속하는터인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공기가 자못험악하야저서 어느지방에서는 온어업의 중심지인자기네를 무시한다는등 리면에엇더한흑막이잇다는등 재점을들어 동맹탈퇴(同盟脫退)를 결의 하엿는바 그추이는 자못 주목을 끌고잇는데 회사당국으로서는 무진장의 녕월(寧越)삼척(三陟)의 무연탄(無煙炭)을 배경으로하고백여만원을드려 하천개수(河川改修)항만수축(港灣修築)등으로 그면모를일신할 강원도(江原道)삼척에 다음사개항목의 유리한조건(條件)이잇스므로 공장을설치케되리라고한다

一、세칭사억톤의 매장량(埋藏量)이잇다는녕월(寧越)을 중심으로한 조선전력(朝鮮電力)의공급으로 전력료금(電力料金)은 다른후보지 지방에비하야 절대적으로 렴가(廉價)이며 삼척(三陟)에서물윈 발전(發電)케되면 더욱이 렴가(廉價)로될것

二、연료(燃料)는 무진장(無盡藏)의 무연탄광인 삼척(三陟)녕월(寧越) 탄전을 배경으로한것

三、장래에 이에로한 자매회사(姉妹會社)를설치함에유리한것

四、회사에서 일년간사용할 이백만관(二百萬貫)의오유(鰮油)를 강원도연안에서만도 충분이생산한다

十八錢東彰學術講習會 七圓四十五錢金止善 六圓五十四錢州內面處塲錫外九名 十圓倉里振興會 三十三圓四十錢檜泉面內振興會 二十圓李祀鵬 五圓 孫泰熙 鄭聖澤 鄭一男 四圓 金卿訟 韓學教外廿二人 李仁範 三圓 鄭基澤 金守範 鄭六男 禹東植 崔禹鏞 李裁

仁川港을經由하든 紅蔘의販路杜絶
支那事變影響으로

【仁川】삼신산불로초의 별명을 듯고 조선인삼의 명성은 새삼스럽게 그효과를 말할것도업거니와 그중에 홍삼(紅蔘)의 판로는 남지나(南支那)가 유일한 지점이되어잇다하야도 과언이아닐만큼 남지나에서는 수시로 차(茶)를 먹을적마다 가루를 타먹는다고하는그것까지 지나사변으로 판로를일허 인천경유수출품에 중요지위를 점하고잇든 홍삼도 칠팔월에는 그흔적조차 볼수업슬만큼 두절되엿다한다

楊州郡民의熱誠 벌서三千餘圓의巨額

【楊州】양주군(楊州郡)각금의황군위문금(皇軍慰問金) 국방헌금(國防獻金) 방공기재비(防空機材費)군사후원련맹회비(軍事後援聯盟會費)는군내의 거금만 수천여원에달한다는데 그씨명과 금액은아래와갓다

皇軍慰問金 五十圓九里面 金然永 八十二圓八十四錢 愛國婦人會瓦阜面分區 四圓四十錢同聯隊面分區十五圓 同州內面分區二十八圓二十錢 同九里面分區四十圓 同白石面分區五十圓 同漢金面分區 三圓眞道乾 五圓眞乾面揖鑢里、下獨井里 六圓三十錢後濱洞 四圓三十錢新村 三圓三十錢榕山 二圓八十錢陽地使 一圓五十五錢乾 一圓三十錢店乘洞 一圓合債 以上各振興會 二圓金落泰 孫松岩

國防獻金 百圓眞乾面各洞振興會 十七圓伊淡面 二十圓入江永五郞 八圓十八錢金谷公普職員生徒 五圓 天本傳五郞 四圓遠峯洞振興會 三圓五十錢 鐵相洞振興會 二圓二十錢金順山 一圓八十三錢孝村簡易學校

防空機材費 百圓檜接面高原嘉次郞 五十圓金然永 百二十一圓二十錢瓦阜面李宅鎬外九十四人 五十圓四十九錢愛國婦人會議政府分會 十六圓佳合洞振興會 十五圓南部重利 九圓五

通川、長箭方面에 金剛電鐵을擴張
同社重役等現地出張

【鐵原】금강산전기철도회사(金剛山電氣鐵道會社)강본전무(岡本專務)와산기서무과장(山崎庶務課長)은 지난십삼일 새벽차로 동해안방면통천(通川)장전(長箭)방면에 사업을확장하기위하야 일주일간예정으로 시찰여행을 출발하얏다는바 금반시찰이 끗나는대로 동해안 발전상 큰사업이 실현되리라한다

鐵原畜牛大市에 自轉車盜難頻發

【鐵原】철원읍에서는 지나십일일밤부터 이일간에 자전거도란사건이 십사건이나 발생되엿슴으로 철원경찰서에서는 놀라운사건에 극력활동중이라는바 우금것 범인은묘연한 중이라하며 삼도 칠팔월에는 그흔적조차 볼수업슬만큼 두절되엿다한다

校長에게血書보내고 松林에縊首自殺
低級文藝中毒? 前途悲觀? 疑問의隱縣公普生

【楊州】양주군은현공립보통학교(隱縣公普)사학년생 남태히(南宅熙)(一七)는 지난십이일아침 혈서(血書)를한생편에 전평교장(前平校長)에게보내고 자기집에서이정가량되는송림중에서 목을매고 죽은일이잇다 전평교장은 아해에게서『사』의편지의형서를 바더보고 대경하야 수업을중지하고 학생의집에뛰여가무르즉 아침울먹고나가서 드러오지를 아니하얏다함에 더욱초조하야 근처산으로 수색중발견하얏슬때는 벌서목을매여죽엇다한다 전평교장의 말을 드르면 죽기전날위문주머니를가지고 내일군으로교장과가티 갈터이니 아침을일즉이먹고 오라하고 돌려보냇는데 동내학생이 이편지를가지고와서 놀낫다하며 남군은 학교에서도 평소에 성적이양호하며 현재사학년급장으로 선생의총애를밧든아해라한다

죽은아해의 어머니의말을드르면 선생과가티 내일、군에를갈터이니 새옷을달라는것을 다음옷을 쉬드러웁게입는다고 나무래고 새로양복을끄내서 다라노코 아침에 빨내를하러간사이에 이런일이생기엿다고하는데 평소에『황야에우는소조』(荒野에우는小鳥)라는책을 읽엇다는데 혹은저급(低級)문예잡지의 감념이나 혹은 변력관계로 상급학교에 입학되지못할것을 비관하지나 안엇나하는 양설이잇다한다

同德女普運動會

시내동덕여자보통학교(同德女普校)에서는 오는십칠일(토요일)오전아홉시부터 시내 신무문(神武門)밧광장에서 추계운동회를개최할터이라한다

仁川商品見本市 十月六七兩日로決定

【仁川】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에 당국으로부터 산업발전책에 적극적노력을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인천사상조합에서는 레년과가티 제일회상품견본시를 개최키로하얏는데 금년은 특히 산업발전책을 주로하야 출품도 례년에 비하야 성황을 이룰것이며 그간 인천에 중공업공장이 진출한이후에 첫시험이다 물론 각공장의 후원도 적지 안흘것이라하야 벌서부터 그성황을 예기하고잇다

長篇小說 花冠 【50】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생각만흔가을(三)

동욱은 눈을 들어 창박게던 지엇슬뿐、대답하지 안는다。하늘은 어느틈에 흐리여 잇섯다。동욱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네? 제가 무리한 주문이지오? 지금 동욱씨께……』

『아시면서 왜 무르세요』

『알면서……』

『다른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 오는 여자나 왜 바라세요?』

『지정한 사람을 위해서 자존심이 업는 문제가 아니냐 사랑노예가 더 행복합니다?』

하며 재하는 놀라는 시늉처럼 흐리다 걸상에서 일어낫다。동욱도 따라일어낫다。그러나 재하가 동욱에게 덤비려 일어섯든 것은 아니엿다。퇴짐을 지고 창아프로 가더니 창틀에 걸터안저 다시 담배를 피여물뿐 이다。창박게도 비방울이 떠러지기시작하다。

『저 가겟습니다』

『벌서요? 비가 옵니다』

재하도 시계를 본다。

『시간은 좀 잇지만 산보 좀 하지 가겟서요』

『비가 옵니다 한째기 잘 쏘다질것 가튼데요』

『괜찬어요』

동욱은 비를 회괴하게 맞고 시픈 기분도 난다。

『그래도……침 될 좀 잡숫지도 안쿠……』

『괜찬어요』

사실동욱은 배도 고팟다。안 사먹을것 변까지 가기 전에는 사먹을것도 업다。

『식모가 오매리로 생선 사러 갓나본데……가만 게서요좀……』

하더니 재하는 맛울새도어시바 그로 뛰여나간다。동욱은 그를 부르려고도하지 안코 다시 걸상에 안저버리인다。

비소리가 노파진다。놉지 안으나 파도소리도 올려온다。어느구석에서인지 버레소리도 난다 울고시퍼진다。

『사람 일생가운데 왜 이런서글픈 시간이 끼여잇슬가ー 차라리 울음이나 시원히 나오는일이래도……』

비는 정말 소내기인듯、번개불이 나고 천둥소리가 난다。

그리더니 비는점점 더굵고 더 배이게 쏘다진다。

『내 일생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긴것이 끼여잇슬가?』

생각이 난다。더욱 안타까워진다。일어서 창아프로 가본다。

비가 드려뿌린다。창을 닷고우두거니 서서 쏘다지는 처맛물과 빗발을 내다본다。

트르게네프의 소설『그전날밤』의 한장면이 생각난다。에레나가 자기를 무심히 버리고 노서아를 떠나 저이 조국으로가버리려는 애인을 만나러가던길 이러케비가 쏘다저 어느처마미러서 그놀때다。헌 거지노파도 비를 그누러 드러와서

『아가씨? 왜 울어요? 곳 개입니다。사람의 일생도꼭 불행한때는 이런때와 갓습니다。비가 여간해 끄치지 안흘것 갓지오? 그러치만 언재비가왓드냐싶게 개여버릴때가 곳온답니다』

자세히는 생각나지안흐나 어렴풋으로 그 안탑갑고 슬픈 에레나를 위로하여주든그 노파의 생각이난다。이런때는 그런 노파、그런인생의선배가 잇서주엇스면 시퍼진다。

재하는 우산을 어더 쓰기는 하엿스나 옷이 만히 저저가지고 실과를 안고 드려왓다。동욱은 사양하지 안코 사과와 차미를 먹엇다。정거장에 나갈시간은 되어도 비는 끄치지 안는다。

『비가 작구 옵니다』

재하가 동욱의 눈치를 보며 말한다。

『그리게요』

『비가 이러케 오는데 떠나서야할게 뭡니까?』

『뭘요 차 타고 가는데요』

『……』

동욱은 우산을 하나 달래서 밧고 나섯다。재하도 따라나선다。정거장에 나오는 동안비소리때문도 잇것지만 별로 음성을 노혀 지꺼릴 말도 서로업엇다。

정거장에 나와 비인 우산만 바터 들고 섯는 재하의 모양은 가엽서 보히기도 하엿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욱에게는 역시 하는 말밧게는 재하를 위해 생각나는 말이 업섯다。

◆男女共に心得べき! 諸礼法 婚礼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世間百般の挨拶の仕方や儀式の心得を知らないで笑はれる人が随分多い。本書は朝夕の挨拶から時候の挨拶、出産、招待、病気見舞、弔問、開業、… 結婚後の心得 … 定價一圓廿錢 … 大阪東淀川局區 西町 發賣元 國民書院日報係

韓青商會 高級綢緞 옷감 京城府桂洞町 電話光三一九九番

謹告 可驚할根治藥! 急慢性男女淋疾에百發百中藥價三圓아모리藥을써도안나신분은곡服用하시요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生堂藥房 振替京城二一一二九九番 약질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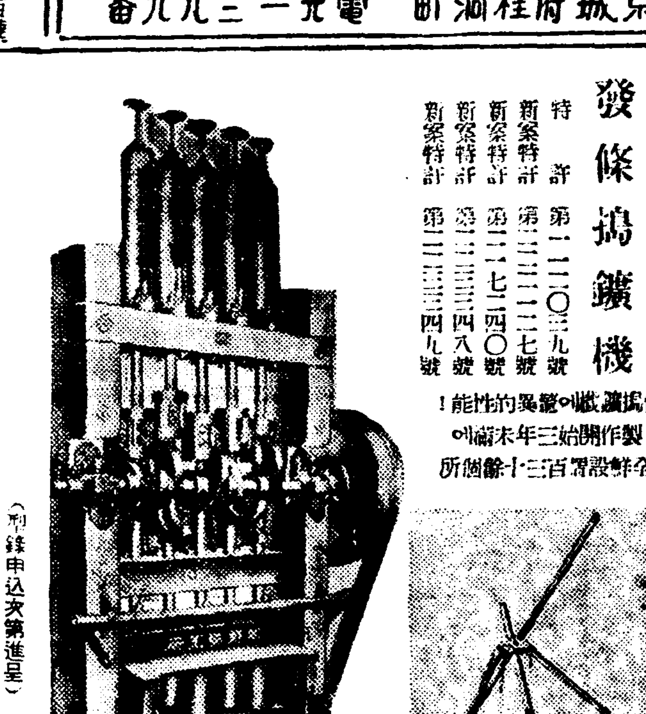
謹告 … 王祖光 謹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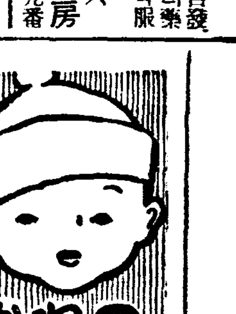
十寶丹 眩暈 잇는 食傷 滯 1円 10전 京城櫻井町一丁目 十寶丹本舗

제일독 원조 조선세창갓표 바늘은 물끼잇는손으로(갑을)문대도 조곰도 변치안는것이특색입니다 근래각지방소매상과야시에서왕왕위조품을취급하는일이잇사오니사실때에는반드시세창침에주의하시압
純正商標見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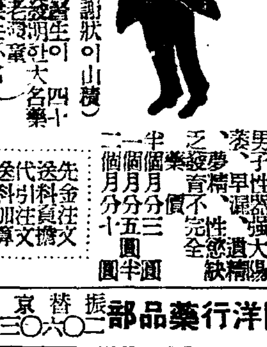
直輸入販賣商 仁川府支那町 同福公 京城販賣總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タイル의用命은 (DK)代理店吉川洋行으로 品質優良、價格低廉 在庫品絶對豐富 タイル는(DK)마ー크에限함 洗面、手洗、便器 무엇이나具備해잇습니다 東洋陶器株式會社特約店 セメント防水劑マノール代理店 淺野株式會社代理店 タイル問屋 吉川洋行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長七〇六番

新發明鑛山機 發條搗鑛機 特許第一二二〇三九號 新案特許第二二一七四〇號 新案特許第二二三四八號 新案特許第二二三四九號 發條搗鑛機는驚異的性能! 製作開始三年未滿에 全鮮設置百三十餘個所

砂金試掘機 (新案特許第二三五一一三號) 價格低廉一手取扱至便 (目錄申込次第進呈) 朝鮮鐵工所 京城府中林町二三八番地 電話本局⑨〇〇六三番・振替京城二四七八番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無線電話技術講習生徒募集 ◎募集人員 一、豫科 五〇名 一、速成科 三〇名 (學則要三錢) ◎基礎鞏固 就職開業確實指導 官認 朝鮮ラヂオ技術講習所 京城府蓬萊町一ノ八三 電話本局三、〇六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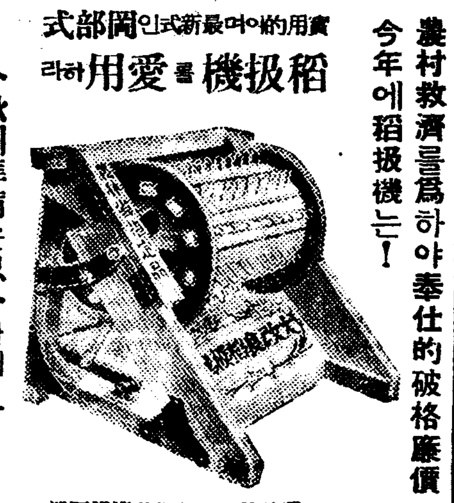
淸導補腎丸 性器強大靈藥 中國名藥 자! 本劑는 … 四十年 … 勿驚 … 本洋行이絶對責任지고勸告한다 … 男子藥 … 半個月分一圓五十錢 一個月分三圓 … 國際洋行藥品部 安東市街 振替京城三〇六〇三番


器械鍼療法 日英米獨佛特許 奧村療法 朝鮮學院 ◎實地講習科 ◎通信講習科 ◎速成講習科 朝鮮語로講習함 學則開業文獻送呈(郵券六錢要) ◎所在地=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番地 ◎本院=大阪市西區江戸堀下通五丁目 電話土佐堀三八四二番 ◇特典=修了者全國無條件開業ヲ得 同書必要關係書類完備

眼、鼻、顔面其他整形外科 죽은깨、여드름、사마구治療 【附設淋病實費科】 清華醫院 鍾路二丁目七二 林商會樓上

京城高等簿記學院 第84回生徒募集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月五日 ◎最近校舍新築大擴張 …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夜間) 就職紹介◎官廳、銀行、會社、商店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月五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準備)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生徒募集

稻扱機를愛用하라 實用的이며最新式인岡部式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但定價半額以上先送金注文者에限하야出荷함) 組立 二人用一臺(價特十九圓) 農具專門製作鐵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二六四一 振替大阪一九九一六


イカリソース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信用 日本一의品質

◇九月十六日부터三日間! 京城新富座 … クレオパトラ … ◇巨匠セシル・B・デミル氏監督作品 … 若旦那三國一 … 大都映畫 … ◇新興키네마超特作時代劇 …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 八州俠客陣 … ◇支那事變特報 ◆東日・大毎・朝日・讀賣・各社ニュース ◆南風薩摩歌 ◆チース騒動 … 團成社

世界棉花需給

◇…記錄的增產豫測

各國의 新棉收穫豫想은 例年과가티 最近發表되고잇는바 모다 顯著히增產豫想으로 一九三七—三八年度는 아마 世界棉花生產에잇서서 記錄的豐作年度로 될것으로보힌다 卽 米棉의 第二回收穫豫想은 一千六百九十萬八千俵로 一九三一年以來의 大豐作이오 支那棉은 四百四十萬六千俵로 豐作年度인 昨年度보다 만타 또 印度及埃及에 잇서서도 印度는 作付面積만의 發表를보면 前年度와 不變이나 埃及은 段別이增加되야 世界의新棉生產은 三千五百萬俵의 多數에 達할것으로豫想된다

이 生產激增에 對하야 果然 世界棉花消費가 步調를 合하야갈지 疑問되는 狀態에잇다

世界棉花生產 世界棉花生產高는 一九三六—三七年度에잇서서 記錄的增產을 示하얏다 卽 同年의 世界棉花生產은 三千二百二十七萬四千俵(린타-를除하고)로 前年度에 比하면 四百七十九萬六千俵의 激增, 過去의 最高記錄인 一九二六—二七年度의 二千八百九萬五千俵를 훨신 凌駕하얏다 이와가티 世界棉花生產은 昨年度에잇서서 飛躍的 增產을 作하얏스나 過去廿年間은 全혀 不振을 繼續하얏다 그리고 一九一四年頃 世界棉花生產高는 每年百萬俵식의 不絕한增產이 必要하다는 見解가有力하엿스나 戰前의 記錄인 一九一四年의 生產高 二千七百卅五萬五千俵를 超過한것은 一九二五—二六年度及 一九二六—二七年度뿐이엇다

米棉對他國棉 다음 世界의棉花生產을 米棉과 米國以外의 諸國으로 나누어서 觀察하면 그兩者間에 顯著한 差異가잇슴을 알수잇다 卽米棉은 一九三一—三二年度以後 減產狀態에잇서 近來稀有의 豐作이라고하는 本年度新棉收穫豫想高에잇서서도 一九三一—三二年度에 反하야 他諸國은 增產의一途를示하고 特히支那, 蘇, 埃及『뿌라질』의 飛躍이 顯著하다 例컨대 一九三一—三二年度에잇서서 米國以外의 諸國棉合計는 一千九十三萬八千俵로 世界生產合計의 三七、六%에 不過하엿는데 一九三三—三四年度에는 五〇、五%로 世界生產의 半分에達하며 一九三六—三七年에는 드듸여五九、二%로 增大되어 斷然米棉을壓倒하게되엿다

世界棉花消費 一方世界의棉花消費는 生產이 永年不振이엇슴에反하야 每年增加를 繼續하야 이미一九三五—三六年度에잇서서 一九三一—三二年度보다 五百七萬五千俵의 著增이다 또一九三六年—三七年度는 二千九百四十萬二千俵로 이는前年度에比하면 二百數十萬俵의 增加에 該當한다 特히消費增加가 顯著한것은 米棉印棉及 埃及棉을 除한其他의 棉花로 一九三五—三六年度는 一九三一—三二年度의二倍에갓가우며 一九三六—三七年度는 上半期만으로도 이미 一九三一—三二年度의 一個年分을 凌駕하고잇다

世界需給關係 다음 需給의『바란스』를보면 一九三一—三二年度에잇서서의 生產은 二千八百三十四萬九千俵이엿는데 對하야 消費는 二千二百二十一萬五千俵로 그差『린타-』를除하고 二千八百四十一萬五千俵에 達한다 그러나 一九三五—三六年度에는 生產은 二千七百四十七萬八千俵로 減少되고 消費는 二千七百三十九萬四千俵로 增加하얏기때문에 그差八萬四千俵로 激減되고 需給逼迫을告하게되엿다 一九三六—三七年度는 消費가 約三千二百數十萬俵이엇슴으로 生產過剩은約二百數十萬俵나 되는데 消費는 世界紡績會社消費만이오 家庭의 手紡機消費를 包含치안엇슴으로 需給의均衡은 자못 良好하다고할수잇다

粟과大豆도豐作!

粟五百八十六萬石、大豆四百四十一萬石

粟一割五分八厘、大豆一割六分七厘增收 九月一日現在豫想

【農林局發表】本年의 粟及大豆作況을 調査함에 南朝鮮地方에 輕微한 旱害와 平安北道에 風水害가잇섯스나 全朝鮮的으로보면 氣候順調하야 作況이 頗히良好하다 卽九月一日現在의 豫想收穫高는 粟五百八十六萬五千五百八十石 大豆四百四十一萬五千三百二十九石으로 前年實收에比하야 粟一割五分八厘 大豆一割六分七厘의 增收이다

粟及大豆作付反別收穫高累年對照表

	粟 作付反別(町)	粟 收穫高(石)	大豆 作付反別(町)	大豆 收穫高(石)
昭和七年	八〇六、〇四七	[illegible]	八〇九、九六八	四、四〇九、六七七
同 八年	七九七、五一八	[illegible]	八〇三、八五二	四、五五五、二七
同 九年	七九〇、八〇一	三、七一一、七三〇	七九五、〇四一	三、八三二、八七七
同 十年	七九四、四一三	四、八二〇、七四七	七九一、八五七	四、三五七、五二八
同十一年	七八八、五五四	五、〇六五、〇九六	七八七、四四七	三、七八四、二五五
五個年平均	七九五、六九七	四、八六六、四五一	七九七、六〇五	四、一六七、四三五
昭和十二年(豫想)	七九九、四〇七	五、八六五、五八〇	七八七、二九二	四、四一五、三二九
同對前年增(△)減	△八、八四八	八〇〇、四八四	△三、七九	六三一、一二四

端境期持越米 四十七萬石?

◇朝鮮米需給推算

今年의 端境期持越米는 九月一日現在 殘存米를 基準으로하야 推算하면 四十七萬七百八十三石이되어 前年의四十九萬五千三百五十石과 大略相等한數量인데 이數字는 輸送關係其他를考慮한數字임으로 實際持越米는좀더少量이라고보겟다

◇…供給

九月一日現在	一、一〇三、七八三
九、十兩月輸移入豫想高	二〇、〇〇〇
合計	一、一二三、七八三

◇…需要

九月中輸出	一、〇〇〇
同移出	二〇〇、〇〇〇
十月中輸出豫想高	一、〇〇〇
同移出豫想高	一五〇、〇〇〇
九月消費見込高	一五〇、〇〇〇
十月同	一五〇、〇〇〇
合計	六五三、〇〇〇
差引	四七〇、七八三

米穀研究總會

諸問題懇談

米穀研究會는 十五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總會를開催하고 會員五十四名이 出席하야 石塚國檢所長으로부터 今年의作柄에對하야 [illegible] 本年의實收와 大體同樣이다 昭和五年은 舊統計에依하야 一千九百十八萬石 新統計로 換算하면二千四百萬石으로 된다고하고 이어서 滿洲鮮銀理事로부터 本年의米穀資金融通에對하야 富田大阪商船支店長으로부터 朝鮮米輸送問題, 朝鮮軍經理部長中山少將으로부터 時局과朝鮮의物資에對하야 各其私見發表가잇고 [illegible]會에移하야 午後十時散會하얏다

民有林振興

朝鮮商議陳情

賀田朝鮮商議會頭는 十五日役員會決議를가지고 十六日午前十時總督府로 大野政務總監을訪問하고 現下朝鮮의民有林은 一千萬町步에亘하고 其中大規模의것이 百萬町步에達하야 國策見地로그 振興助成策을 講究하야달나는 要望을하고 民有林振興에關한陳情을行하얏다

京城商議議員總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七日午後二時半부터役員會를開催하고 一、北支貿易視察에關한件 二、京城商工組合聯合會主催商工從業員修養과 慰安映畫會參加에關한件 三、去九月十日開催의 朝鮮商工會議所 臨時總會經過報告件을 附議할터인데 更히午後三時半부터 議員總會를 開催하고 役員會同樣의請案을附議할터이다

商議三會頭北支視察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北支經濟事情視察의 第一線으로 京城、平壤、大邱各會頭가 現地에赴키로되어 一行은來二十日旅客機로出發, 三週間豫定으로 北支에滯在하리라한다

土建協會創立一週年

京城土建協會에서는 來二十八日이 創立一週年인데 當日午前十時 朝鮮神宮에서 戰勝祈願祭를 行한다

一流銀行에서도 貸出金利引上

府內銀行의 一般的貸出金利는 資金難의影響을受하야 昂高步調를示코잇는데 最近에入하야 有力銀行의 一流放資處에對한 貸出도 漸次上向되어 最低金利는 一厘 乃至二厘騰貴이다 卽 殖銀 鮮銀等의 貸出도 公債를擔保로 하는것은 別問題이나 其他는 모다 一厘가량 引上되어 最低一錢三厘、一錢四厘로되엇다 朝鮮內의 最低金利引締로서注目된다

鮮銀이東一을通해 工事金融開始

土建協會內에 工事金融의 圓滑한 疏通을圖할 目的으로 過般設立한 保證組合은 活動을 開始하기로되야 于先 鮮銀當局은 從來는 工事金融에잇서서는 不動產擔保를한것이엇는데 保證組合의 保證에依하야 工事取下金을 擔保로 金融할便法을講究한것이다

北支向小麥粉輸出 事變前倍以上急增

【東京發商通】北支向小麥粉輸出은 事變勃發後一時杜絕되엇스나 其後治安維持工作과共히 急速히 恢復되어 八月은 三十五萬袋로 事變前의 例月十五萬袋에比하야 倍以上의急增이다 九月은四十五萬袋乃至五十萬袋로 三倍以上의激增이豫想된다

滿洲의產業計畫

戰時體制下에再編成

【新京十六日發同盟】戰時體制下의 產業計畫再編成에 關하야滿洲國側代表로서 東京가서 日滿一體로된 計畫立案에 參劃한岸產業部次長은 十五日旅客機로歸任하야 如左히말하엿다

戰時體制에依한 產業計畫樹立에當하야 日滿一體가 具體化될것이다 滿洲國으로서는 分擔이 決定되면 樹立한 滿洲五個年計畫은 當然再編成될것이다 가장 必要한것은鐵로 이것은 鞍山 本溪湖及未開發의 通化를 動員하야 大增產을 꾀하게 되엇는데 通化의 開發을 昭和製鋼의손으로할것은 目下研究中이나 增產豫定은 五年後에 五百萬噸의對日輸出을한다 其他製鐵石炭液化에 必要한 增產을하겟는데 金도現在의二倍乃至三倍를產出할터이며 펄프도지금보다 增產하여야하겟다 그리고消費도 當然히統制하겟다

朝郵新造船幹線配備

朝鮮郵船에서는 新造船計畫이 竣工되어 冬節輸送繁忙期를마지하고 同社에서는 來十月一日부터 全面的으로配船을곳치고 新造船을幹線에配備키로되엇다 主要航路의 新配船概要는如左하다

一、西朝鮮東京線‖興東丸、興西丸、金泉丸、大海丸

一、西朝鮮大阪線‖大興丸、盛京丸、漢江丸

一、北朝鮮東京線‖安州丸、定州丸、江原丸

一、北朝鮮大阪線‖新京丸、金剛山丸

一、北朝鮮沿岸大阪線‖淸津丸、京畿丸、榮江丸

特히스피드輸送에依하야 船腹難에善處할方針이라한다

朝窒、北支서 探鹽할計畫

朝窒系에서는 曹達工業의原料인 工業鹽의對策으로서 朝鮮內鹽田의開發其他를 愼重研究中인데 北支의情勢에鑑하야 北支의 鹽業開發의 將來性에 着目하고 北支에서 製鹽의計畫을進코잇다 近間同社로부터는 關係者가 現地에 出張하야 調査할豫定인데 現在同社의原料鹽은 歐洲其他로부터 供給하고잇는만콤 注目된다한다

繁昌해진鮮銀地金係

十五日부터 產金令이施行됨을 따러 地金買入은鮮銀만免許되고 其外地金商은 새로免許를얻게되엇슴으로 十五日의鮮銀本店地金係는 大盛況을呈하야 百六十三口六〇키로 四九九瓦八의地金이 殺到되엇다 十四日의 八十八口에比하면 거의倍요 또 重量도 十五日以前平均四〇키로에 比하야 五割의激增인데 大口는 一貫이오 거의小口뿐이엇다한다。 十五日에買入한金額은 얼마냐 하면 地金을分析中임으로 자세 알수업스나 普通地金千分에對하야 純金으로六百乃至六百五十임으로 槪算十五萬圓가량을 買入한 計算이라하며 十六日은더욱밀려 오는사람이만어 奔忙하얏다

(寫眞은鮮銀本店地金係窓口)

九月上旬鐵道荷動

鐵道局의 九月上旬荷動狀況은 前旬에이어서 大豆、野菜、石炭、鹽、肥料、雜貨等이增加를보엿는데 其他品目은모다減少되엇다 本旬의成績은 二十二萬五千五百六十瓩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二萬九千百四十二瓩의增加다

取引亭上

(九月十一日)▲精米業 京城府鐘路四丁目一八〇 東昌精米所 金谷浩 ▲文房具商 京城府仁寺町一七九 株式會社彰文堂 取締役社長 [illegible] ▲京城府南山町一丁目 長崎屋商店 (九月十三日)▲京城府北米倉町 [illegible] 永沼總平 ▲製藥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一六七 信興商會 [illegible] ○ 鄭大福

今日의市勢 【十六日】

株式

新高價後少押

前場續騰 昨後場爆發大引後 今朝는 東新二十錢低의 百四十一圓五十錢 鐘新六十錢低의 二百三十二圓二十錢 大新十錢低의 七十六圓九十錢 日產不變의 六十七圓五十錢으로 寄付後 北支戰線總攻擊奏效로 大捷『이불레』를 好感하야 買氣를 喪失치안코 東新은 百四十一圓八十錢에 [illegible]

新高價로活況 今朝外電 스톡株一弗四分一低 工業株 아나콘다 一弗八分五低 工業株 三十種平均五弗低에도 不拘하고 北支戰線總攻擊을開始하야 上海、南支의戰局大擴展됨과 金融緩和策을 好感하야 昨後場爆發以來 今朝도 依然續騰하야 鐘新과如함은 支那在工場의 回復曙光도잇서特히 好轉을示하야 今朝二百三十五圓의 高價를내엇다 歐洲政局의不安 日伊防共協定在近期待等으로 押目다운押目이업시 奔進코잇다 비록압헤는 時局實際影響 增稅等의憂慮가잇다하나 그것은지금材料삼지안코 買氣壯觀이엇다

後場低地 後場은 東新三十錢低의 百四十四圓九十錢 鐘新二百三十一圓六十錢 大新七十六圓六十錢 日產六十七圓으로寄付後 [illegible] 軟調이엇다

戰局에市勢左右

過去의 戰爭市勢를보면 日露戰役이 明治三十七年二月에 開戰되매 當時戰局의長期憂慮、非常時、財界前途憂慮等으로 相當히 波瀾時代가 繼續되엇다 同三十八年五月까지에 高地의占據 바르틱크艦隊의被滅로 紡績、農業株中心으로 一齊히好轉되고 繼續하야 工業株도 好轉을보앗다 其後講和、償金、樺太의割讓、外債募集等 幾多의波瀾이잇섯스나 當時戰勝樂觀或은 財界悲觀이繼續되엇다 [illegible] 歐洲大戰은 大正三年八月에 開戰되엇는데 同年末까지는 大體低迷되고 同四年부터 時局關係株中心으로 高調를보앗다 平和株中心으로 人氣를끌어 東新株가 先驅가되엇섯다 그戰後의 好景氣는 이제는 꿈으로 變하얏스나 이번 事變의 輪廓이 大規模인것으로보아 今後의 推移如何로는 新時代에잇서서의 千載一遇의 好機會를 捕捉할 大市勢가업스리라고 누가 斷言할가 이제 北支 上海 南支에 亘하야 戰局은 好轉되고잇는모양이므로 그推移가 注目된다고한다

國債好勢

金融樂觀

【東京電話】金融情勢의 緩和的 同調推移로 多少前途에樂觀的氣分이擡頭의 形勢이어서 賣方의踏退와 共히割當國債는 現物이잇서 內地債는 十錢 乃至 二十錢가량 更進되고 佛貨도 三、四十錢가량 續進되고 米貨도 過般의 買經이 二、三圓高를示하얏다

東京國債市況

甲五分利	一〇一五五
二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	一九五四五

期米

高價一巡反落

前場反落 今朝는雨天으로 阪地先限三十一圓三十四錢인五丁高를 掉하고 中은九圓三十九錢 八丁高로 先限은 突然賣物이 續出하야 二十九圓三十七錢인五丁高로場을 始한時 阪地四節二十錢까지反落하엇다가 六節二十九錢까지 反騰하를따아 三節二十五錢으로 六節三十一錢에返하얏[illegible]

後場揉合 後場은 二十八圓十錢의 一丁低로寄付後 二節十七錢、三節十八錢、五節十一錢으로 伸悩이엇다

後場低地 [illegible] 利喰賣가나와서 阪止十一錢과 共히十一錢에 反落止場하다

步調去益堅實

新甫十一限이 發會한後 急轉直下로 阪地二十九圓八十錢 當地二十七圓十六錢을 一齊한後 因循低迷의 保勢를維持하다가 步步로 細刻하면서 堅實하게 勝勢를繼續하고잇다 [illegible]

今朝當地場面

今朝東京大阪은 雨天으로 買氣助長하야 昨止價보다 五丁反高를示하얏스나 日復日纖細昻騰하여온만큼 그步調가 多少倦怠의感을呈하야 十丁內外의 低落을告하고 當地亦十餘丁의 低落을보이고 更强이다가 反落이엇다 勿論中途一落이업슬바가아니지마는 豐作의弱材를 相殺하고도 오히려남음이잇는環境의 事情으로보든지 又는東西市場의 仕手觀으로보든지 此에서 三、四十丁乃至四、五十丁의 低落이잇다할지라도 結局은以上의昂騰을可期할수잇다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불레』 豫想할수잇스며 又는買米貨上에잇서서도 百五十萬石가량을 保持하는外에 적어도 四、五百萬石程度의 大量買上을하기가 非常時局이마지고 [illegible] 이러한모든條件이 [illegible] 大手筋은大部分賣方에 加擔하고잇다 그러므로 市勢는 떠러질뜻하고도 新高價로推移하는光景인데 아직도어느程度까지의 高價를남겨논 感이업지아니하다

正米

傍觀 買氣不振

京城不變 目前前途難測으로 原料注文만 그날그날 推移하야 市場不振이며 各地期米保合으로 市勢前價同樣이다

仁川一息 各地期米의 不伸과 多少新米의 初出現으로 人氣 新米氣分으로 化하고잇스며 奧地로부터 近鄕農作의 소리에 散見되나 地場實需側은 低價에는 買함으로 市勢는 前日同樣이다

釜山軟化 目前不味로 買方의 冷靜한態度가 繼續되고 精米側이 當用向買氣를 低價에엿보고잇을뿐이고 其他는 一齊傍觀으로 閑況場面이다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不動 一般買氣不振의 現狀으로 商盤이업고 市勢도 無行的으로 不動狀態를 示하얏다

白米一等 三三、〇〇 四等 [illegible]

群山保合 日本內地人氣가 多少잇스나 現價位에는 收支가 맛지안어 傍觀狀態이다 依然賣物은 적으나 市場은 閑散推移이다

一等白米 [illegible]

木浦保合 無材料의 此際 商談이 不進하고 雙方傍觀的의 保合狀態이다

市場六感

株…戰捷氣分이 濃厚하야 勇敢한 押目買로 不安人氣掃去되고 目前一大戰勝市勢가 期待되는터이나 滿身創痍의 大衆은 사지안는모양 ▲通貨供給工作이 進行되는限 資本不足이 『팜프』다지되고 財界에는 [illegible]

米…昨日의反撥은 阪地潮時인때문 新規先潮派一派와 東京馬越一派와의 當限七萬石踏合도 一因이어니와 解合後馬越의中限이또한一因 ▲買方主力側인馬越一派와 主力側인潮先氏兄弟는 可謂老將益壯의大勝捷을 奏하고 賣方主力의潮先氏兄弟는 當代一流名將으로서의 大慘敗 ▲一勝一敗는兵家常事니 時不利兮奈若何를 부르짓지 말고 捲土重來의길을밟부소 ▲그러나市勢는 아직도日支事變을唯一한好機로한 硬軟의砲擊에 抑留되어 容易히低落치못할 모양인걸 ▲諸葛平生有謹愼이라 아무리豐作이지마는謹愼하소(韓山)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大阪期米先限、京城一等米一石、京城白米百키로、正租(仁川)一等、一斤假三等、丁豆神戶現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新、東新、鐘新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綿絲、棉花、人絹、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十六日)

▲白米(一石、單位圓) [illegible]

▲麥粉(三三瓩、單位錢) [illegible]

▲肥料(一叭、單位錢) [illegible]

▲織物(單位疋) [illegible]

▲紙類 [illegible]

▲燃料(叺、單位錢) 撫順石炭 塊 [illegible] 京城檢查木炭一等 (二〇瓩) [illegible]

▲洋燭 ▲砂糖 ▲織物 ▲海產物 ▲染料 ▲塗料 ▲木材 ▲人絹 ▲牛皮 [illegible]

海外經濟 (十五日)

[illegible]

銀行券 (十五日)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正租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絲製品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豆油粕·麥粉

◆阪神豆粕 ◆阪神豆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算定代引日步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砂糖 · 生絲 · 人絹 · 棉花 · 綿絲

◆東京砂糖 ◆大阪砂糖 ◆橫濱生絲 ◆各地人絹 ◆大阪棉花 ◆大阪綿絲 [illegible]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3939 1572 應酬賣販換引金代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